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뉴스잡지 162호

칭하이 무상사의 새로 나온 출판물

새로 나온 책

DVD

MP3



일본어판『신은 모든 것을 돌보신다』 칭하이 무상사의 지혜가 담긴 만화집

누구나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이 다채로운 색감의 책에는 칭하이 무상사가 해주신 스무 편의 이야기들이 생동감 넘치는 재미있는 만화로 구성되어 있다. 각 이야기들에 담긴 교육적으로 가치있는 심오한 주제들은 독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큰 기쁨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호소력 있게 우리의 마음을 고양시키는 이 이야기들은 어린이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그 속에 담긴 고귀한 진리를 전달함으로써 사고력과 창작력, 그리고 개인적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격려해 준다. 오늘날 복잡한 기술사회에서 칭하이 무상사의 유머와 지혜가 듬뿍 담겨진 이 보물 같은 책은 어린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풍성히 키워낼 것이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실감나는 음향을 갖춘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제작되어 있다.

온라인 감상 사이트: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illustrate/index.htm> (영어-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illustrate/index.htm> (영어-미국)

474

(영어 + 22개 국어 자막)

마음을 따르라

1995. 4. 28. 프랑스 파리 단체영상

내용 요약:

이 DVD에서 스승님은 세계 디자인의 중심지에서 천의 패션쇼를 열게 된 까닭을 밝히시며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물이 새지 않는 흙 없는 수도관만이 물을 필요한 곳에 보낼 수 있는 법이다. 우리가 신의 사랑을 전하는 훌륭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종종 복잡한 마음으로 자신을 구속하고 방해하며 살아 있는 스승을 의심하기도 한다. 운 좋게 살아 계신 스승의 제자가 된 우리는 스승의 일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해 스승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좌절하고 고통을 느끼는 것은, 내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은 항상 스스로 문제를 자초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MP3-CL04

(중국어)

1989. 2. 22-23.

포모사 타이베이 강연

- 내면의 진아를 아는 방법
- 출가 생활의 의미

1989. 2. 24-25. 포모사 종리 강연

- 법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공덕이다
- 장수의 비결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의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 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CONTENTS

차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62호

출판일자 : 2006. 5. 6.

설립년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Hsieh Hsin-lin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 (042) 543-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kpt@yahoo.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 앞표지 안/ 영혼의 고향**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책/ DVD/ MP3
- 4 스승님 말씀**
우주가 후원하는 경이로운 여정
- 6 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 24시간 인터넷 TV 프로그램-천국으로의 초대
- 7 다채로운 이벤트**
호주/ 일본/ 태국/ 대한민국/ 포모사/ 프랑스/ 미국
- 18 행사 메모**
- 19 시**
완전히 의미 새로운 크리스마스
- 20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생각과 말의 힘

23/ 30/ 39 지혜어록

최고의 존재에 걸맞은 음식/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스승들이 하신 이야기는 깨달음의 선물/ 모든 생명을 존중하면 우리 삶도 축복을 받는다/ 육식만 포기해도 세상을 구한다

25 신기한 감응

빛나는 희생의 본보기

26 스승님의 농담

올바른 처방, 잘못된 환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되지/ 불평 많은 구두쇠

27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모든 것은 다 신의 은총이다-수박 왕자 이야기

31 골라 뽑은 수행 문답

신이 우주를 운행하게 하라/ 신실한 감사가 신의 은혜를 가져온다/ 스승은 제자들의 신의식을 반영한다/ 어려움은 삶을 살아가는 대가이다/ 명상을 통해 삶이 연극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파하라/ 채식은 우리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한다

38/ 43 자연 속에 담긴 이치

채식으로 사막화를 예방하자/ 조류 독감에 대한 고찰

40 유용한 건강 정보

사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41 황금시대의 생활 방식

마음으로 가꾸는 유기농 텃밭

45 채식 시대

조류 독감-인류에 대한 자연의 경고장

48 동물의 유정 세계

개의 애정 어린 행동이 상처 치유에 도움을 준다 / "안녕!"-동물 친구들이 보낸 안부 인사/ 화목하게 지내는 순진한 천적 동물들

52 사랑의 실천

프랑스/ 어울락/ 프랑스에 거주하는 어려운 형편의 루마니아 이민자들과 어울락 태풍 이재민들에 대한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구호 활동 지출 내역/ 코스타리카/ 미국/ 일본/ 대한민국/ 포모사

68 어둠 속의 등대

내 인생을 밝혀 주신 스승님

69 전세계 연락처

74 인터넷 속 작은 이야기

두 친구의 기도

뒤표지 무상예술

오묘한 세계가 채색 부채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다



우주가 후원하는 경이로운 여정

청하이 무상사/ 1999. 6. 5.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원문 영어) DVD No. 648

우주의 형제에는 광대하고 아름다운 지성의 연결망으로서, 우리는 그 일 부분입니다. 이 연결망의 어떤 부분에서든 문제가 생기면 전체 연결망의 작용과 효과가 다소 늦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수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아지지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단지 여러분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봉사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나도 여러분에게 속해 있으니까요. 나는 나 자신이 여러분과 하나라는 것을 명상 수행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 없다면 여러분 내면의 본질과 내 내면의 본질은 대양처럼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병 때문에 병 속에 담긴 바닷물과 병 바깥의 바닷물이 나뉘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육신은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을 창조합니다. 그러나 매일 명상을 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신과 하나인 거지요. 우리는 신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단지 신은 우리에게 이 물질적인 '옷'을 입혀 각자 맡은 바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이 우주를 모든 면에서 다채롭고 풍부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나면 우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갈망이 우리에게 시간이 다 되었는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다음 생이나 다음 세기까지 기다렸다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신이 결정하는 거지요.

나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해 여기 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을 재촉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저 여러분이 준비되었을 때 돕기 위해 대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와 우리 사형사저들만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의 힘이 대기하고 있지요. 신이 대기하고 있고 모든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하면 모두들 우리를 호위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길을 따른다면 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행성, 이 물질세계만이 유일한 행성은 아닙니다. 신의 집에는 많은 저택이 있으며, 그 모든 저택에는 우리와 같은 훌륭한 존재, 어떤 면에선 우리보다 훌륭한 존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그들은 우리가 집으로 가는 여행에서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여행이며, 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누구나 지극히 행복해합니다. 이 여행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도 더욱 좋게 해주기 때문에 더욱더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행은 우리의 영성을 진보시킬 뿐 아니라 물질적인 면에서도 도움을 주어서 우리 삶은 더욱 풍요롭게 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생기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깁니다. 이것은 이른바 전수, 다시 불 밝히기, 또는 입문이라는 것을 통해 여러분이 신을 보고 신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곧 신이 원하는 것이 됩니다. 신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사실 신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의 지시나 조언에 귀 기울이는 법을 잊어버려서 이런저런 문제와 고민에 대해 신이 일러주는 해결책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신이 우리의 기도에 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연결된 우리의 '전화선'이 잠시 불통이 되었거나 잘못된 것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고작 여러분이 그 전화선을 다시 연결하고 고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천국과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즉각 깨달음'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몇 초만에 빛을 보거나 천국을 볼 수 있으며, 예수와 서로 이야기하거나 신을 볼 수도 있고, 고대의 스승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직접 천국의 지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저 여러분의 전화선을 다시 연결해 주기 위해 여기 온 것뿐입니다. ❖



24시간 인터넷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

천국으로의 초대



황금시대의 과학 기술로 정보 전달이 빨라지면서 인간계와 천국 간의 거리도 보이지 않게 좁혀지고 있다.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24시간 온라인으로 방송되는 '예술과 영성'을 통해 신의 말씀을 전세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칭하이 무상사의 멋진 강연과 예술 작품 외에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각 센터의 활동, 독점 인터뷰, 문화 공연, 채식 요리 시연 등을 소개하고 있어 이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신의 신성한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전면 개편된 '예술과 영성' 24시간 인터넷 TV 프로그램에는 여러 나라의 언어로 된 자막이 새로 추가되어 보다 많은 전세계 네티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인터넷 시청 관련 웹사이트: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tv> (광대역 필요)

* '예술과 영성' 방송 지역과 일정표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tv/timetable/htm>

호주 소식

신의 사랑이 멀리 남대양까지 전해지다

레이&줄리 덕슨 (원문 영어)

[태즈메이니아] 태즈메이니아(Tasmania)는 호주에서 남쪽으로 2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이자 주(州)이다. 호주 동수들은 2005년 10월과 11월 사이에 이 섬의 수도인 호바트(Hobart)의 태즈메이니아 대학 예술 회관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 주에는 태즈메이니아 센터에서 방편법을 전수했다. 이렇게 해서 이 머나먼 섬까지 스승님의 사랑이 닿게 되었다.

강연회 당일, 태즈메이니아 동수들은 멜버른과 인근 지역에서 온 동수들의 도움을 받아 강연장을 꾸미고 스승님의 출판물을 전시했다. 날씨도 봄날같이 따뜻해서 사람들을 행사장으로 인도하는 듯했다. 자리가 다 차자 동수들은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 ‘깨달음은 모든 것을 위한 도구이다’를 극장 만한 화면으로 상영했다. 참석자들은 조용히 비디오를 시청하면서 스승님 사랑의 메시지에 빠져들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참석자는 “이곳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군요.”라고 했으며 한 동수 역시 행사장에서 조화로운 기운을 느꼈다고 했다. 실제로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이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흡족한 표정이 역력했으며, 많은 방문객들이 관음법문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질문을 하고 방편법을 신청했다. 가볍고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방문객들은 동수들이 준비한 맛있는 채식요리를 시식했다.



강연회의
긍정적인 기운은
그 다음 주 일요일까지 계속 이어져 새로운 방편법 신청자들은 태즈메이니아 센터에서 열린 방편법 전수 시간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이 새로운 수행자들은 강연회에 참석한 후 일주일 내내 고양된 느낌이었다고 얘기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관음법문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고 입문 신청도 하게 되었다.

이번 호바트 비디오 강연회와 방편법 전수 모임은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행사였다. 동수들은 이 두 번의 행사에 아름답고 조화로운 기운을 보내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

관음법문, 건강과 영성 박람회를 고양시키다

프랭크 소직/ 퍼스 (원문 영어)

[퍼스] 호주 퍼스(Perth) 센터는 2005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호주 서부의 퍼스에서 열린 ‘의식적인 삶 박람회’에 참가해 부스를 설치했다. 해마다 각계각층의 많은 방문객들이 몰리는 이 박람회는





영성과 대체 건강이 접목된 유일한 행사이기도 하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출판물과 예술작품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과 관음법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명상을 해 본 적이 없는 많은 방문객들로부터 명상하는 법, 그리고 우리 법문과 다른 명상법과의 차이점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동수들은 견본책자와 관음법문에 관한 전단지도 많이 배포했는데, 받은 사람들은 모두 귀중한 보물을 받은 듯 여겼다.

우리 부스에 오게 된 까닭을 묻자 많은 방문객들이 “그냥 이리로 이끌려 왔어요.”라고 대답했고, “칭하이 스승님이 매우 친근하게 느껴지는데 전에 어디서 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동수들이 어찌면 꿈에서 뵈었거나 전생에 스승님을 만난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자 방문객들은 대부분은 선뜻 수긍했다.

박람회 기간 내내 동수들은 우리 부스에서 퍼져 나온 스승님의 축복이 구도자들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순수한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이끌었다는 것을 느꼈다. 이를테면 우리 부스 옆에서 암 퇴치를 위해 모금 운동을 하고 있던 한 여성 단체는 환자들에 대한 그들의 자비심이 스승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했기 때문에 스승님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였다.

2005년 의식적인 삶 박람회에 참가한 퍼스 동수들은 영성에 관심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만남으로써 신심이 더욱 강해졌으며 또한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눔으로써 스승님께 봉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 ❖

일본 소식

고대 도시 교토에 영적 분위기가 퍼지다

일본 뉴스그룹



[교토] 2005년 11월 20일, 제3회 연례 채식 평화 축제가 교토에서 열렸다. 유명한 간사이 지방의 국제적인 중심지인 교토는 관광 명승지로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2005 일본 채식 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지역 사업가와 학생 단체가 주관하고, 일본 채식 협회와 교토 지역의 여러 TV 및 라디오 방송국의 후원을 받았다.

이번 행사의 목표는 심신의 건강을 장려하고 생명의 고귀함과 가치를 일깨우며 인간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과 지구 생태 환경 보호를 호소하는 데 있었다. 이런 취지는 스승님의 가르침과 거의 일치했기 때문에 동수들이 흥법을 하기에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도쿄와 오사카의 동수들은 지난 9월에 있었던 ‘도쿄 채식 주간’ 행사에 참가한 후 다시 한 번 이번 축제에 참가해 부스를 마련했다. 이전에 있었던 흥법 활동들은 대부분 도쿄에서 열렸기 때문에 동수들은 간사이 지방 사람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인연을 맺게 해줄 이번 축제를 매우 뜻깊게 생각했다.

행사장에서 판매되는 채식 제품들은 유제품이나 꿀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채식이었다. 동수들이 준비한 이국적인 맛의 채식 과자들

은 큰 인기를 끌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스를 여러 번 찾아왔고 우리 채식 물품은 마감 한 시간 전에 이미 다 매진되어 많은 이들이 아쉽게도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채식 물품을 사는 동안 많은 방문객들이 스승님의 출판물을 훑어보며 기쁨과 만족감으로 표정이 밝아졌으며 집에서 읽고자 견본책자를 얻어 가기도 했다. 행사장의 분위기도 매우 평화롭고 편안해서 동수들은 이 모든 것이 스승님의 축복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일본 동수들은 채식 평화 축제 참가를 통해 소중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며 스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체험했다. 또한 앞으로 이런 행사를 계속 개최할 자신감도 키울 수 있었다. 동수들은 모두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에 감사드리는 한편 더욱더 많은 이들이 관음법문을 수행하게 되기를 희망했다. 이 성공적인 행사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격려를 보낸다! ❖



태국 소식

활기찬 강연회로 태국의 의식을 고양시키다

방콕 뉴스그룹 (원문 태국어)



[방콕] 2005년 11월 20일, 태국 동수들은 방콕의 수코타이 타마티랏(Sukhothai Thammathirat) 통신 대학에서 성공적인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행사 며칠 전부터 동수들은 마을과 시장, 슈퍼마켓, 회의실,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지역에서 행사를 알리는 전단지를 열심히 배포했다. 강연 당일 동수들이 연꽃과 장미, 안수리움 같은 꽃들로 행사장을 꾸몄으며 스승님의 법상을 곳곳에 붙이자 행사장은 스승님의 가피력으로 충만해졌다. 주방 팀은 한 사저의 집에서 참가자들을 위한 맛있는 채식 요리를 부지런히 준비했는데, 이 요리에 스승님의 축복이 가득 스며들도록 함께 명상하기도 했다.

행사 당일, 방콕과 주변 지역의 많은 구도자들이 찾아와 스승님의 사랑이 자아내는 따뜻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대학 부근의 한 마을에서 온 주부는 동수들에게 “아주 우연히 강연회에 오게 되었어요. 딸이 오늘 정오에 시험이 있어서 딸을 바래다 주고 오는 길에 강연 포스터를 보게 됐는데 그 순간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지요.”라고 신실하게 얘기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동수들은 당연히 그 ‘우연한’ 일이 스승님의 안배라는 것을 알았다.

강연회 동안 스승님의 조건 없는 사랑, 친절, 우아함과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은 많은 참석자들은 비디오 ‘내면의 자성에 귀 기울이



기'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비디오 본 스승님의 일대기와 관음법문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스승님의 출판물을 사기도 했다. 오랫동안 스승님의 사진을 지극히 바라보던 한 노인은 동수들에게 “난 스승님의 앵무새가 무척 마음에 듭니다. 이 사진들 속에 있는 새들에게서 퍼져 나오는 힘에 감동했어요.”라고 말했다. 비디오 상영이 끝난 후 참석자의 약 2/3가 남아서 방편법을 배웠고 그 중 몇몇은 입문하기를 희망했다.

그후 참가자들은 동수들이 준비한 맛있는 채식 요리를 함께 즐겼다. 태국 동수들은 많은 구도자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진 것에 기뻐했으며, 이번 비디오 강연회와 같은 행사가 태국인들, 더 나아가 전세계 사람들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

대한민국 소식

문화의 중심지와 산업 도시가 사랑의 바다에 잠기다

서울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영주/구미] 한국 동수들은 2005년 10월과 11월에 영주와 구미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영주는 한국 최초의 목조 사찰인 부석사와 선비들의 배움터인 소수서원이 있는 유서 깊은 선비의 고장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구미는 한국 최대의 공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 근대화에 큰 역할을 해 왔다.

영주 흥법 행사는 10월 23일 규모가 큰 식당에서 열렸다. 동수들은 화사한 종이꽃과 풍성한 화분으로 행사장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손님들을 위해 떡과 몇 가지 차를 준비했다. 이날 영주 문화원 이종순 원장을 비롯한 80여명의 청중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예전에 부산에서 열린 비디오 강연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런 영적인 행사는 정말 바람직하며, 영주 시민들에게 고마운 일입니다.”라고 동수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청중들은 스승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처음 들어보는 우주의 진리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수행에 관한 질문을 했으며, 이 중 여러 명이 방편법을 신청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영적 세계로 발을 내딛게 되었다.

낙동강 상류에 자리 잡은 선비의 고장 영주에서 낙동강을 따라 아래로 내려오면 산업 도시 구미가 나온다. 11월 10일 동수들은 구미시에 ‘명상의 향기를 전하자’는 취지로 구미 시립도서관 소극장에서 또 한 번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이 시작되기 전 동수들이 영성에 관심이 많은 청중들에게 플루트 연주와 성악 독창을 공연하자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비디오 상영이 끝난 후 동수들은 다양한 영적 배경과 수행을 하는 참석자들에게 명상법에 대해 상세한 토론을 벌였다.

영주와 구미 강연회의 긍정적인 반응을 지켜본 동수들은 빛과 소리의 신성한 파장이 두 도시를 사랑의 바다로 이끄는 것을 느꼈다. 동수들은 구도자들에게 관음법문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신께 감사드리는 한편, 앞으로도 계속해서 스승님의 가르침에 관한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 ❖

One World

-사랑의 채식 페스티벌

광주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광주] 2005년 12월 11일, 광주 동수들은 청솔 채식 뷔페에서 광주 센터 10주년 기념 경축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이웃과 하나 되는 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바람으로 'One World-사랑의 채식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행사에 앞서 동수들은 아름다운 금빛 초대장을 인쇄해 전국의 동수들과 방편법 수행자, 그리고 그동안 광주 센터가 지속적으로 봉사 활동을 해 온 나주 부활의 집, 밀알의 집, 나사렛 형제의 집 등에서 지내는 친구들과 광주 센터의 쓰나미 구호 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은 스리랑카 노동자 형제들에게 보냈다.

그 밖에도 가족과 친지 및 친구들을 초청하는 한편, 주변의 독거 노인 및 불우한 형제자매들을 방문해 쌀과 생필품을 제공하고 김치를 담가 주거나 장판을 깔아 주기도 했다. 이러한 나눔의 활동을 통해 동수들은 이번 행사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다.

행사 당일, 행사장은 다채로운 풍선과 안내문 등으로 장식되었고, 음악 밴드가 손님들을 맞이했다. 200명이 넘는 손님들로 순식간에 행사장을 가득 채웠으며, 손님들은 동수들이 준비한 멋진 특선 채식 요리들에 감탄하고 그 맛에 놀라워했다.

식사시간이 끝난 후 밴드 공연과 판소리가 이어졌으며 동수들의 다양한 춤과 악기 연주도 뒤를 이었다. 그 중 가장 아름답고 심금을 울린 것은 전문 연주가인 한 사형의 오카리나 연주였다. 오카리나 연주가 계속되는 동안 '채식이 갖는 평화'라는 주제를 담은 영상물이 함께 상영되었다.

동수들의 공연이 끝난 뒤에는 손님들의 장기가 펼쳐졌다. 특히 순수한 모습의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노래는 이날 가장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서 초대 손님들은 이 행사의 취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스승님의 일생과 업적을 소개



▲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스리랑카 손님들이 페스티벌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



◀ 지난 몇 년 동안 광주 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는 장애인 손님들의 합창.

하는 비디오테이프 '사랑의 길을 걷다'를 시청했다. 그후 동수들은 관음법문과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대해 소개하면서 채식의 이로움과 채식 요리법에 대해서도 알려 주었다.

손님들은 이번 행사가 고양된 분위기였다고 얘기하며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 준 것에 감사했다. 광주 동수들 역시 소중한 시간을 내어 행사에 참석해 준 모든 초대 손님들에게 가슴에서 우러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실제로 이번 행사의 풍선 장식을 해준 이벤트 전문가는 "많은 행사에 다녀왔지만 이번 행사는 정말 특이한 행사였어요. 스님, 수



판소리 공연.



다양한 배경의 손님들이 점심을 함께하다.



너, 목사님이 한자리에 모이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 행사는 처음 봤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행사가 끝난 후 복지 시설의 어린이 손님들은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재미있는 시간을 지낸 데다 새 학기를 위한 가방까지 선물로 받았다.

광주 동수들은 이번 사랑의 채식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행복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모든 손님들은 이날 흡족하고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동수들은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 계속 성장하게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스승님의 축복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로 다짐했다. 불우한 형제자매들에 대한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은 지난 10년 동안 스승님의 빛나는 모범을 통해 배운 것이다. ❖

영천에 사랑의 물결이 닿다

대구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영천] 2005년 11월 27일 영천 동수들은 경상북도의 소도시인 영천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동수들은 대도시 위주로 진행되던 비디오 강연회가 영천에서 개최된 데 대해 매우 고무되었다. 영천은 여러 도시를 잇는 교통의 관문이긴 하지만, 소도시인 탓에 문화 행사가 드문 편이었다.

영천 동수들은 대구와 부산 센터 동수들의 도움을 받아 세심하게 행사를 준비했다. 도시



곳곳에 붙여진 포스터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 중 강연장 부근 파출소의 한 경사는, 자신이 관상학에 조예가 깊은데 스승님의 관심이 아주 좋으며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강연 당일에는 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견본책자와 잡지만 받아갔는데,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은 듯 “스승님과 여러분 단체를 돕고 싶으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오세요.”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강연회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날씨도 몹시 추워질 것이라는 일기예보와는 달리 포근하고 따사로웠다. 포근한 햇살 속에서 동수들은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다채로운 풍선으로 강연장과 입구를 장식했다. 강연장 옆의 전시실에는 스승님의 만세등과 그림도 전시해 참석자들은 강연뿐 아니라 스승님의 아름다운 예술작품도 감상할 수 있었다. 전시회를 찾은 사람들 중에는 사진작가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오랫동안 스승님의 작품을 돌아본 후 동수들과 대화를 나누며 명상 스승이 예술가로서 활동한다는 사실에 관심과 놀라움을 표했다.

이날 강연장을 찾은 청중은 60명이 넘었는데, 이는 도시의 규모를 감안할 때 무척 많은 수였다. 청중들은 스승님의 2000년 서울 강연인 ‘삶은 영원히 지속된다’를 시청했으며, 강연이 끝난 뒤 열여섯 명이 방편법을 전수 받았고 몇 사람은 입문을 신청했다.

행사에 참가한 동수들은 영천 강연회 전후로 영천의 이웃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천상의 인연을 심은 것에 매우 기뻐했으며, 앞으로 다른 소도시에서도 이런 흥행 행사가 계속되어 더 많은 형제자매들이 환상의 물질세계를 벗어나 각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지고의 힘을 발견하고 황금시대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했다! ❖

포모사 소식

스승님의 예술을 통해 황금시대에 진입하다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타이베이] 2005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타이베이 센터 동수들은 타이베이 시립 사회교육관에서 ‘황금시대를 향해 노 저어 가자’라는 제목으로 칭하이 무상사 예술 작품 전시회를 가졌다. 영적인 깨달음과 시각 예술이 어우러진 이 행사는 포모사 각계각층의 대중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10월 29일, 수많은 저명인사들을 비롯해 약 200명의 손님들이 참석한 개회식에서 동수들은 음악 공연과 함께 맛있는 다과를 제공했다. 저명한 예술가인 추어 클레멘트 씨는 치사를 통해 “칭하이 무상사의 그림을 처음 본 순간 대가의 작품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작품 하나 하나는 칭하이 무상사의 일상생활에 담긴 영적인 통찰과 내적인 법희를 보여주며 그 속에는 매우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스승님의 그림과 우아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만세등은 많은 예술 전문가와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그들 중 개



막식 전부터 도착해 작품을 감상한 광푸 초등학교 그래픽 디자인 교사인 황여사는 그림 ‘천당화’에 특별한 인상을 받았다. “이 작품은 칭하이 무상사의 가슴속에 피어 있는 연꽃을 표현하는 듯 세속에 있으나 오염되지 않는 경지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방문객인 류티아오밍 씨는 95초만에 42피트 길이의 거대한 용을 그려 하룻밤 새 유명해진 전설적인 인물이다. 그는 서예와 그림 표구 전문가이기도 하며 10여 년 전에 스승님의 법상 틀을 만드는 것을 많이 도왔으며 스승님의 경서와 잡지도 읽어 본 적이 있었다. 류 선생은 특히 스승님이 직접 디자인한 액자에 대해 각 그림에 따라 그림에 담긴 의미를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비록 평범한 목공 기술자에 의해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액자는 독창적이고 순수하며 가식 없는 그림 스타일을 완벽하게 부각시킨다. 류 선생은 이튿날 한 무리의 학생들을 데려와 스승님의 예술 작품에 담긴 심오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각 그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함께 나누었다.

11월 2일에는 마침 같은 사회교육관에서 자신의 민요 음반 발매를 홍보하던 현대 예술가 장용춘 씨가 스승님의 예술 작품 전시회를 둘러본 후 스승님의 높은 경지와 고귀한 정신을 직관적으로 알아보곤 “스승님은 영적인 세계





저명한 포모사 예술가 추어 클레멘트 씨.

를 소개하고 예술 창작을 통해 세인들에게 아름다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시는군요.” 하며 진선미의 정신을 강조하는 스승님의 이상에 동감을 나타냈다. 장 선생은 관음법문과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견본작가를 요청하면서 시후 센터를 방문하고 싶다는 마음도 나타냈다.

이 밖에 전시회 기간 동안 많은 인연 있는 사람들이 방편법을 배웠다. 그 중 포모사 공연 중에 여가 시간을 이용해 전시회를 방문한 에스토니아 예술가 칼레브 키로자(Kalev Keeroja) 씨는 스승님의 그림과 만세등을 매우 좋아했으며, 방편법 전수 시간이 있다는 것에 기뻐하면서 그 즉시 신청했다. 방편법을 배운 후 그는 매우 즐거워하며 “에스토니아에 돌아 가면 에스토니아 동수들을 만나야겠어요. 그럼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겠죠.”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스승님의 축복 속에 영적 깨달음과 시각 예술이 어우러진 축제 ‘황금시대로 진입하다’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

프랑스 소식

진리의 메시지가 아름다운 낭트에 도착하다

낭트 뉴스그룹 (원문 프랑스어)



[낭트] 2005년 11월 5일 프랑스 서부 루아르 강가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 낭트에서 처음으로 칭하이 무상사 비디오 강연회가 열렸다. 세 명의 낭트 동수들은 행사 일주일 전부터 파리 동수들의 도움을 받아 거리와 낭트 대학 캠퍼스, 창작예술 전시장에서 전단지를 배포했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우호적인 모습으로 전단지를 받았으며 종종 미소 띤 얼굴로 동수들에게 고마워했다. 전단지를 다 배포한 후 동수들은 도로에 버려진 전단지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강연 당일 40명의 방문객들이 참석해 스승님의 강연 ‘용기 있게 삶에 맞서라’를 진지하게 시청했다. 이어서 모두들 신선한 과일과 과자를 함께 즐겼으며, 그 중 여덟 명이 방편법을 배웠다.

일찍 강연장을 떠나야 했던 한 젊은 여성은 동수들에게 “며칠 전 내게 전단지를 주었던 여자분 주위에서 빛을 보고는 오늘 다른 약속이 있는데도 강연회에 참석하게 됐어요.”라고 말하며 곧 파리 센터에 연락하겠다고 했다.

강연회 다음 날, 또 다른 젊은 여성이 동수에게 연락해 개인적인 일로 강연회에 참석하지 못해 정말 유감스럽다면서 나중에라도 비디오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사형사저들은 즉시 그녀가 스승님의 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날짜를 안내해 주었다. 낭트 비디오 강연회를 통해 이미 준비된 많은 구도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

미국 플로리다 소식

스승님의 '빛의 일꾼들'이 영성 모임을 빛낸다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보카 라톤] 플로리다 센터 동수들은 2005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플로리다 보카 라톤(Boca Raton)에서 해마다 열리는 '우주적 빛의 일꾼들 회의(Universal Lightworkers' Conference, ULC)'에 참가해 부스를 설치했다. 이 행사의 주최측은 내면에 있는 신의 빛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빛의 일꾼들'이라고 한다. ULC는 다른 영성 박람회와는 달리 오직 신 중심의 주제만을 전시하는 것이 특징이며, 올해 주제는 '사랑과 빛의 경축식'이었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강연, 음악 공연, 전시회, 워크숍, 명상과 기도회 등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완전히 영성 수행을 위주로 하는 행사에는 처음으로 참가한 플로리다 센터 동수들은 스승님의 책과 강연 비디오, 그림, 만세등, 법상을 전시했다.

이번 행사가 동수들이 그 동안 참가했던 비슷한 행사들과 구별되는 또 다른 큰 차이점은 같은 관람객들이 사흘 내내 우리 부스에 온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둘째 날이 끝났을 때는 거의 모든 참가자들이 스승님의 비디오를 시청하고 견본책자를 받았거나 최소한 스승님의 법상을 여러 번 본 상태였다. 그 중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 부스를 찾아와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다. 이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동수들은 날이 갈수록 참가자들을 잘 이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스승님의 메시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의 또 다른 특징은 참가자들의 마음이 매우 열려 있다는 점이었다. 다양한 배경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아낌없이 사랑과 호의를 자연스럽게 보여주었으며, 미소 띤 얼굴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모두 안아 주는 사람들도 많았다. 또한 전시자들도 서로의 부스를 자주 왕래하며 서로의 제품과 창작품을 눈여겨보았다.

이번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주최측에서 장비 정리부터 모든 강연과 명상 시간을 포함해서 기술적인 세부 사항까지 매우 신경을 쓴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최측은 행사 저녁 파티에서



사람들에게 먼저 채식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묻기도 했다. 허리케인 월마로 인해 운송과 숙박에 불편을 겪었지만 참가자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모두 대단한 열정으로 즐겁고 인상 깊은 모임을 만들어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광경은 폐회식에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서로 주고받으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을 때였다. 사람들은 모두 포옹하거나 악수를 하며 서로에게 축복을 기원했다. '우주적 빛의 일꾼들 모임'에 참석했던 동수들은 참가자들의 편견 없는 태도와 큰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비록 우리가 스승님을 따라 내면의 빛과 소리의 법문을 수행하며 큰 복을 누리고 있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 역시 그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방식으로 신을 사랑하고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대해 비평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일 또한 매우 흐뭇한 일이었다. '우주 안에선 모두가 형제'라는 마음가짐은 정말 대단히 신성한 품성이라 할 것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

도움의 손길을 보내 마음을 치료하다

산호세 뉴스그룹



[산호세] 2005년 8월 말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동부의 3개 주를 강타해 엄청난 피해를 낳고 이로 인해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집, 일 자리를 잃었다.

그러나 그후 수 주 동안 정부의 도움으로 많은 이재민들이 미국 전역의 여러 도시로 옮겨져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했다. 이 과도기 동안 캘리포니아 산호세도 많은 카트리나 이재민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2005년 11월 19일 새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산호세 카트리나 이재민 문화와 자원 박람회’가 산타클라라의 산호세 시청에서 개최되었다. 많은 지역 기업 단체와 자선기관 및 다른 단체들이 이번 행사에 참가했는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산호세 센터도 지난번 재난 구호 활동을 통해 얻은 명성 덕분에 이번 행사에 초대를 받았다.

행사장 중앙에 위치한 우리 부스는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60호에 나온 동수들의 재난 구호 활동 모습을 담은 포스터들을 전시했는데, 이것은 많은 인파들의 시선을 끌었으며 일부 방문객들은 이 사진들을 진지하게 살펴보면서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좀 더 배우기도 했다.

이재민 중 한 사람은 포스터를 가리키며 “제가 전에 저 근처에서 살았어요!”라고 말했다. 또한 많은 이재민들이 우리 협회가 온 힘을 다해 구호 활동을 했다

는 것을 알고는 진심으로 감동했으며, 우리가 나눠준 견본책자를 귀중한 선물인 양 손에 꼭 쥐었다.

이 밖에 우리 부스를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한 이번 박람회의 많은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산호세에 있는 우리 채식 식당의 단골손님이라고 말하며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조금 알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동수들은 그들에게 견본책자와 뉴스잡지 160호를 주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지나간 후, 인류는 물질세계의 무상한 본질에 대해 더욱 깊이 절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 사랑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돕게 된 것 같다.

이번 ‘카트리나 이재민 문화와 자원 박람회’에서 대중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스승님의 축복과 사랑을 크게 느낀 동수들은 폐막 시간에 부스를 정리하면서 이번엔 얻은 것이 정말 많았다고 느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카트리나 이재민들은 대중들의 격려를 받고 새 삶을 시작할 자신감을 얻었으며 새로운 영적 열망의 씨앗들도 그들 마음속에 심게 되었다. ❖



스승님의 사랑이 프레즈노에 다시 불을 붙이다

프레즈노 & 산호세 뉴스그룹 (원문 영어)



[프레즈노] 프레즈노 지난 주민들은 2001년 6월 프레즈노 컨벤션 센터에서 ‘인생이라는 호텔’을 제목으로 한 청하이 무상사의 강연을 직접 듣는 귀중한 기회를 가진 바 있다. 스승님의 자비로움을 기념하고자 프레즈노 동수들은 2005년 10월 29일 토요일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로스앤젤레스의 동수들과 함께 우드워드 파크 (Woodward Park) 지역 공공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회 당일, 화창한 날씨 속에 행사장은 구도자들과 호기심을 가진 행인, 그리고 토요일을 맞아 도서관을 찾은 사람들로 순식간에 가득 찼다. 그들 중 상당수가 이미 채식의 맛을 알고 있었으며 스승님의 견본책자도 읽어 본 사람들로서 영적인 길을 찾고자 열망하고 있어서 이 지역 주민들의 높은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듯 했다. 이번 행사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참석한 일부 청년들은 정말 순수했으며 그들은 동수들의 따뜻한 환대와 견본책자의 내용에 깊은 감동을 받고는 비디오를 시청했으며, 나중에는 방법까지 신청했다.

스승님의 1999년 6월 런던 강연 ‘용기 있게 삶에 맞서라’를 상영하자 강연장은 엄숙하고 고요한 분위기에 감싸였으며 청중들은 스승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몰입했다. 비디오 시청 후, 사람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찬성하기도 하고 진리에 대한 스승님의 명확한 설명에 찬탄하기도 하면서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휴식 시간 동안에 참석자들은 동수들과 함께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또한 주방 팀이 마련한 맛있는 채식 음식을 맛본 많은 사람들이 음식의 맛에 놀라움과 즐거움을 표하며 집에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이날 마침 도서관을 방문한 한 남자는 다른 참석자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가졌다. 이에 동수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채식 요리를 맛보도록 초대하자 그는 처음에는 처리해야 할 급한 일이 있다며 거절하더니 몇 가지 요리를 먹어본 후에는 즐겁게 접시를 다 비웠다. 그는 스승님의 강연 시청 시간은 놓쳤지만 그후부터는 계속 자리를 지켰고 방법도 신청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채식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며 동물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상을 배우려고 남았으며 해야 할 급한 일도 잊어버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2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방법을 배웠다. 강연회가 끝난 뒤 동수들은 신속하게 새로운 방법법 수행자들이 단체명상을 하고 매주 채식 요리 강습에 참가할 장소를 서둘러 준비했다.

2005년 10월 프레즈노 비디오 강연회에 참가한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이 지구 곳곳을 비추는 태양처럼 신의 자녀들을 진정한 집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승님의 무한한 축복의 힘은 이들 준비된 사람들을 일깨우고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고귀한 영성의 씨앗을 싹 틔운다. ❖



미국 뉴저지 소식

신의 빛이 '심신과 영혼 가을 축제'를 밝히다

리 성이/ 뉴욕



[뉴저지] 2005년 11월 27일 뉴저지 동수들은 폼프턴 플레인(Pompton Plains)의 레전시 하우스 호텔(Regency House Hotel)에서 개최된 제4회 '심신과 영혼 가을 축제'에서 구도자들과 함께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었다.

행사장에 도착해서 받은 주최측의 전단지에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라고 쓰인 문구를 발견한 동수들은 살아 계신 스승의 인도와 신의 축복으로 자신들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스승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진실로 기뻐하고 감사했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만세등과 그림으로 부스를 꾸미고 부스 가운데에는 스승님의 법상을 걸어 많은 방문객들이 스승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방문객들에게 신의 사랑을 보다 잘 전하기 위해 스승님의 천의를 입는 한편 스승님의 강연 DVD를 상영하고 전단지들을 배포했으며 방문객들에게 주말마다 방송되는 스승님의 TV 프로그램을 보도록 권했다.

축제 동안 주최측은 우리 부스를 두 번이나 방문해서 "어제 부스들이 자리 잡을 때 행사장의 에너지가 막힌 것 같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졌는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부스가 장식을 마무리하자

분위기가 좋아졌고 행사장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하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 밖에 스승님의 그림 '동굴'을 본 많은 방문객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으며 그 중 몇몇은 그림에서 빛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심신과 영혼 가을 축제' 동안 거의 모든 부스 관계자들이 우리 부스를 방문해 전단지를 가져갔다. 동수들은 다른 부스에서 소개하는 법문들을 서로 비교해 본 후 관음법문이라는 정도(正道)와 사랑 어린 가르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스승님께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뉴저지 동수들은 스승님께서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했다! ❖

행사 데모

현재 진행 중인 지구의 영성 고양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흥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의 흥법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완전히 새로운 크리스마스

평 사형/ 홍콩 (원문 영어)

놀랍고도 뜻 깊은
올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당신께선 무한한 은총으로
저희에게 진정한 복음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한한 장엄, 영광, 기쁨,
무한한 사랑과 희생!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있기 아주 오래 전부터
고통을 감내하고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당신께서 내려 오셨음을,
수 차례에 걸친 예수님의 재림이
다름 아닌 지구를 축복하기 위한 신의 발자국임을 알고
저희는
그저 숨을 들이킬 뿐입니다.

지금은 정말 위안과 환희로 충만한 때.
신께서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시며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저희 곁을 떠나지 않으셨음을
이제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제 다시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저
당신의 놀라운 은총과
무한한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찬미할 뿐입니다! ❖



생각과 말의 힘

청하이 무상사/ 2001. 12. 30. 미국 플로리다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732



긍정적인 말을 하자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도 별 차이 없이 같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왜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식적인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듣는 사람을 짜증나게 만듭니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진리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빈말이나 거짓된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 예.) 이를테면 “스승님, 고생하시네요.”, “스승님, 식사 못 하셨지요?”, “스승님, 이러시지요, 저러시지요.” 하는 것 말입니다. (대중 웃음) 이런 말들은 진실성도 없고 바보같이 들립니다. 그러니 그런 거짓된 말들을 해서 시간과 기력을 낭비하고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거나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 난 오늘 아주 행복해!”라는 말과 “난 오늘 마음이 너무 답답해!”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느 쪽이 더 듣기 편하겠습니까? (대중: 행복한 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신은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말합니다. “아! 내 아들이 막 결혼했어!”, “우리 며느리가 손자를

낳았는데 토실토실한 게 너무 귀여워.”, “내 사업이 잘 돼!”, “내 몸은 아주 건강해!”, “음! 내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 지금 상황은 별로 좋지 않지만 좀 있으면 좋아질 거야.” 이런 즐거운 말들을 듣는 게 좋나요? 아니면 다음과 같이 기운 빠지는 말을 듣는 게 좋나요? “우리 손자는 왜 그렇게 똥똥한지 몰라!”, “에이, 왜 결혼한 거지?”, “내 사위는 정말 골칫덩이야. 딸한테 그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어. 그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 아닐 거야. 얼마 안 있으면 틀림없이 둘이 이혼하고 말걸.” (대중 웃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대중: 아니요!) 설령 그들의 말이 맞다 해도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중: 예.) 우리는 즐겁고 긍정적인 말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꽃은 예쁘고 하늘은 아름답고 달도 너무 매력적이지요. 그런데 왜 굳이 좋지 않은 부분을 봅니까? 게다가 나는 내가 고생한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녀가 어떻게 내가 고생하는지 알지요? 나는 즐겁게 동수들을 만나고 이렇게 쓰다듬어 줍니다. 우리 모두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스승님! 힘드시죠! 스승님, 고생하시네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 세상에! 그러면 난 정말 힘든 것처럼 느껴져서 더 이상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중 웃음)

우리는 생각과 말로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고양시키고 행복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압박감을 주고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사나 스승이라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학생의 나쁜 점을 고쳐 주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라면 그럴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아이가 아주 못되게 굴면 “너, 오늘은 착하지 않아!”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최소한 ‘착하다’라는 말이 들어가지요. 아니면 “너, 오늘 좋지 않아.”라고 해도 됩니다. 비록 ‘않다’라는 말이 들어가긴 해도 ‘좋다’라는 말도 들어가니까요. (대중 웃음) “너, 오늘 아주 나쁘구

나!”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착하다’, ‘좋다’라는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최대한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도 가능하면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을 보고 뚱뚱하다고 말할 게 아니라 “그다지 날씬하지는 않다.”라고 하면 됩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더 아름다운 말을 쓰면 우정이 오래 지속되지요.

하지만 스승에 대해서는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스승은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태어났으므로, 엄해야 할 때는 엄하고 부드러워야 할 때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스승은 그래야만 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창조의 힘이란 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많이 내리야 물이 많아집니다. 매일 이슬비만 내린다면 사용할 물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호우는 불편을 주기도 해서 도로를 망가뜨리고, 교통이 두절되며, 밖에 나가면 젖을 수도 있고, 농작물이 비에 떠내려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없지요.

우리의 말은 매우 강력합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보통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수행자가 아닐지라도 그의 신실함으로 인해 여러분은 이로움을 얻기도 합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인 거지요. 사람들은 성심 성의를 다할 때 정말 순수해집니다. 그의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가 진실해지는 순간 그의 마음은 정말 단순해지며, 그 순간 그가 여러분을 축복한다면 결과는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증오심으로 꺾쳐서 여러분을 저주한다면 그것 역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행자의 저주는 더욱더 대단하며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할 때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의 힘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다

일본에서 한 과학자가 물을 사용해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선 깨끗한 물 한잔을 얻려 관찰하며 사진을 찍었는데, 그 결과 눈꽃 모양의 결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깨끗하지 않은 물을 찍자 결정체는 눈꽃 모양이 아닌, 특정한 모양 없이 매우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때 다시 오염된 더러운 물에다 기도를 한 후 열려서 관찰하고 사진을 찍었더니 또 다시 눈꽃 모양의 매우 깨끗하고 아름다운 결정체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이와 비슷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물에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거나 ‘감사합니다’라고 쓴 종이를 물 컵에 붙이자 결정체의 모양이 매우 아름답게 변했고, 히틀러와 같은 나쁜 사람들의 이름을 쓴 종이



를 붙이고 사진을 찍자 결정체의 모양도 유령이나 귀신의 얼굴처럼 변했습니다. 아주 무섭고 추악해 보였지요! 성인들의 이름을 붙이면 결정체는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그 성인이 얼마만큼 위대한지에 따라 결정체의 모양도 다르게 나타났지요. 아마 실험을 하는 사람의 신실함과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말을 하지 않고 글로 쓰거나 생각을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험 도중에 그들이 “너는 아주 나빠.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자 결정체의 사진은 매우 무섭게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행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의 축복이나 말에 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에는 정말 힘이 있습니다!

나는 수행을 시작하기 전 깨달은 스승을 만나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녔는데, 돌아와서 예전 남편에게 그 일들에 대해 얘기해 주면 남편은 “그들은 그렇게 대단치 않을 수도 있어. 당신도 깨달은 스승이 될 수 있다고!”라고 말했습니다. “농담하지 말아요! 내가 무슨!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스승인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당신은 분명히 큰스승이 될 수 있다니까!”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 고마워요.”라고 대답했지요. 그 당시 나는 스승이 되려는 생각이 털끝만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아주 진심으로 말한 거였습니다. 그러고선 이렇게 덧붙였죠. “내가 보기에 당신도 큰스승이 될 수 있어. 그 누구보다 훌륭한 스승이 될 거라고!” (대중 웃음) 그는 매일 나와 같이 지

냈기 때문에 나에 대한 믿음이 두터웠습니다. 깨달은 스승들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도 나에 대해선 잘 알고 있었지요. 우리는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대부분 나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잤고 매일 경전을 외었습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당시에는 독경하는 것 말고는 다른 법문을 몰라서 아침에는 『법화경』을 읽고 밤에는 또 다른 경을 읽었으며 매일 여러 가지 경전을 독경했습니다. 가끔 몸이 붕 뜨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감응이 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 우리를 지지해 주거나 우리의 성공을 기원해 준다면 하는 일이 매우 순조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단체나 부부, 또는 서너 명이 힘을 모아 일을 할 때 그 중 한 사람만 반대해도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뭔가가 뒤에서 잡아당기거나 끌어내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반대하는 기운은 우리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물 동일체’이기 때문이지요. 만약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일을 해도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서로 돕고 아무도 그 일을 반대하지 않으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각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테니까요. 그러니 하는 일이 모두 순조롭게 되지요.

우리의 생각과 말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아주 조심합니다. 말은 조심할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친구의를 정말 잘 살펴야 합니다. 이제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으니 더욱 무섭게 느껴질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런 말을 해도 듣기만 하고 이렇게 대단한 것인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한다고 끝이 아닌 거지요. 그 말은 우주에 기록되며 우리 주변의 기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두 글자를 적어서 물 잔에 붙여 놓고 하룻밤이 지난 후 그 물을 냉동시켜 사진을 찍자 결정체의 모양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이 수행자들을 집으로 초대해 귀신을 쫓고 축복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특히 새로 이사했을 때는 더욱더 그랬고요. 어울락인들은 새해가 되면 아주 훌륭한 한 사람을 뽑아 집으로 들입니다. 이는 반드시 매우 좋은 사람만 첫 번째로 집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으로써, 아무나 마음대로 집에 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빗자루를 문 앞에 두었는데, 이는 나쁜 사람은 집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동수들의 체험담

동 수: 스승님께서 방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다 실현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나쁜 말을 하면 그것

이 이루어질까 봐 어렸을 때부터 말을 할 때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주 화가 났을 때라도 감히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지 못했지요.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시후 센터에는 망고나무들이 있는데 한 번은 망고가 많이 달렸습니다. 저는 망고가 먹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가 망고를 따먹고 싶었지만, 장주들에게 혼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탈진 곳에 앉아 망고나무에게 말했지요. “네가 망고 하나만 떨어뜨려서 내 손 있는 데까지 굴러오게 해주면 바로 망고를 주워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장주들도 뭐라 할 수 없겠지.” (대중 웃음) 그러자 정말로 망고가 하나 떨어지더니 제 쪽으로 굴러왔습니다.

스승님: 그것 참 긍정적인 생각이군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동 수: 또 한 번은 제가 딸아이와 함께 산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빨갭게 잘 익은 감이 보였습니다. 딸과 저는 무척이나 먹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감나무에게 말했어요. “이건 신의 것이잖아!” (대중 웃음) 그러자 정말 감이 떨어졌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은 벌레가 들어있기도 하는데, 그때 떨어진 감은 벌레도 안 먹고 아주 싱싱했어요. 저는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마치 신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을 집어먹었는데 정말 달콤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감히 아무렇게나 말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났을 때도 좋지 않은 말은 하지 않았지요. 그게 정말 이루어져서 골치 아파질까 봐요.

스승님: 진심으로 말하면 정말로 이루어집니다! 말을 할 때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그나마 낫지만, 진심을 담아 말을 한다면 당연히 그 힘이 더 큼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말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매우 선량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럴 수 없다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마십시오. 무슨 재난이나 죽음이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

다. 우리 주변의 기운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지요. 우리 자신도 그 속에서 살아야 아니까요! 기운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여러분이 공기 중에 독을 퍼뜨리면 우리 자신에게도 독이 퍼지게 되고, 공기가 깨끗하면 우리도 편안해집니다.

어울락인들은 “집이 깨끗하면 기분이 상쾌할 것이다. 그릇이 깨끗이 닦여 있다면 밥맛이 더욱 좋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기분이 좋고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 그곳의 식기가 깨끗하지 않고 기름기가 흐르는 것을 보면 먹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바로 식욕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 예.) 또는 어떤 집에 갔을 때 집이 아무리 예쁘더라도 안이 어둡고 지저분하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만지고 싶지 않고 기분이 나빠지고 답답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장애가 생기게 되고, 그럼 부정적인 힘도 자연스레 그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

최고의 존재에 걸맞은 음식

청하이 무상사/ 1989. 10. 14.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101A

1차 음식을 먹는 것이 더 고귀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동물로부터 2차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닭에게 곡물을 먹고 나서 그 닭을 먹으며 다시 한 번 소화시킵니다. 토끼에게 당근과 야채를 먹이고는 그 토끼를 먹지요. 왜 그냥 곡물과 야채를 먹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류 음식이며 가장 신선합니다! 육식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것은 에너지와 국가 재산을 낭비하게 하며 세상을 굶주리게 합니다. ❖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칭하이 무상사/ 1994. 9. 11. 태국 단체명상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445

우리의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우주 만물의 물질적 형상을 이루는 재료이기 때문이지요. 생각이 아주 강력하다면 그것은 당장 물질로 나타납니다. 반면 생각이 그리 강력하지 않으면 조금 늦게 실현되지요. 일어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우리 그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저절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일들은 우리의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업(Karma)',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인 것입니다. ❖

칭하이 무상사/ 1996. 7. 23. 캄보디아 프놈펜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63

우리는 본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 신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이지요. 그냥 한번 해 본 생각 이라면 그리 큰 효과가 없겠지만 아주 진지하고 신실하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뿌리깊은 갈망까지 더해진다면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러나 소망한다고 그 즉시 실현되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늘에서 푹 떨어진 것처럼 여기거나, 그것을 '다행' 한 일이나 '불행' 한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금방, 또는 전에 어느 때가, 어디선가, 어떤 이유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걸 잊어버린 거지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좋은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바람직하거나 좋은 일만 일어날 것입니다. 혹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좋은 생각만 하므로 기분이 깨끗할 것이고, 자신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기분 좋을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에 대해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





빛나는 희생의 본보기

추홍 응우옌 사저/ 호주 시드니 (원문 어울락어)

얼마 전 시드니 센터에서 단체명상을 할 때, 강력한 빛이 나타나더니 나를 수정처럼 투명하고 반짝이는 백사장으로 데려갔다. 내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두 제자와 함께 걷고 계셨는데, 분위기가 따스하고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때 갑자기 예수와 제자들이 걸음을 멈췄고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이 돌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빛나기 시작했다. 내 마음도 면류관이 있는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고, 나는 내면의 사랑이 나를 온화하고 만족스럽게 만들며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또한 이것이 내가 배우고 기억해야 할 희생의 공부라는 것이 강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예수님, 저에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가르침에 복종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다음 순간 나는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크고 오래된 나무들로 꽉 찬 조용한 숲 속으로 옮겨졌다. 내가 그곳의 아름다움에 탄복하고 있을 때, 흰 장삼을 입은 스물 세 명의 부처들이 사랑하는 우리 스승님을 중심으로 원을 이루며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스승님의 법의 앞뒤에는 선흥색의 십자가가 있었는데 거의 옷 전체를 덮을 듯했다. 모든 부처들은 스승님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들의 응축된 힘은 너무나도 강렬해 온 우주를 뒤흔들었다. 나무들도 계속 강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스승님도 비할 데 없이 눈부시게 빛나셨으며 스승님의 법의에 새겨진 십자가도 눈부시게 빛나면서 내 가슴속을 관통했다. 스승님의 축복 속에 더없이 큰 평화와 행복감이 밀려들었다. 스승님의 무한한 희생이 이해되었고 온 우주와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스승님을 찬미하는 게 느껴졌다. 나는 “사랑하는 스승님, 어디서나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께 제 마음을 바치오니, 당신의 권능이 영원히 저와 함께하게 하시고 그 어떤 일이든 제가 당신의 뜻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전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의 가르침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온화하고 감미로운 천상의 기운이 나를 감싸는 가운데 나는 스승님께서 나에게 희생에 대한 공부를 가르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이해했다. 내가 이 물질세계에 온 것이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르쳐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스승님의 충실한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신구의를 바치고 싶다. 내 마음을 바쳐 나를 구한 스승님의 무한한 노고에 보답하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

올바른 처방, 잘못된 환자

청하이 무상사/ 2003. 2.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54



한 남자가 약국으로 뛰어 들어오더니 약사에게 팔콕질을 멈출 만한 게 있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약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 한 잔을 따라 그 남자의 얼굴에 뿌렸죠.

남자는 매우 화가 나서 “뭐 하는 짓입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뭐긴요. 이제 팔콕질이 멈추지 않았나요?”

약사의 말에 남자가 말했어요. “아뇨! 팔콕질을 하는 사람은 차 안에 있는 내 아내라고요!” ❖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되지

청하이 무상사/ 2003. 2.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54

법정에서 판사가 한 범죄자에게 30년 징역을 선고하자 죄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 저는 그렇게 오래 살진 못할 텐데요!” 그러자 판사가 말했죠. “걱정 마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됩니다!” ❖



불평 많은 구두쇠

청하이 무상사/ 2003. 2.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54



결혼한 지 2년 된 남자가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문제가 생겼어요! 당신이 나와 결혼시켜 준 여자는 정말 골치 아파요.”

그래서 목사가 물었죠. “뭐가 골치 아프다는 거죠?”

“그녀는 언제나 돈만 달라고 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돈 얘기만 합니다!” 남자가 대답했어요.

목사가 다시 물었지요. “아니, 당신이 준 돈은 다 어떻게 하고요?”

그러자 남자가 말했어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한 번도 그녀에게 돈을 준 적이 없어요.” ❖

스승님의 농담을 동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s/162/jk1.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62/jk1.htm> (포모사)

모든 것은 다 신의 은총이다



수박 왕자 이야기

청하이 무상사/ 2001. 6. 16.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24

이것은 한 어울락 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원래 가난한 평민이었는데, 나중에 왕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왕의 양자가 되고부터 왕자처럼 살며 왕자에 걸맞은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뭐든 필요한 것은 다 있었고 행복했으며 보필을 잘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비단옷을 입고 멋진 궁전에서 살았으며 그 주위에는 아름다운 시종들과 후궁들이 있었고 그가 사용하는 것들은 모두 최고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그를 부러워했지요. “와! 당신은 정말 운이 좋아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구나 꿈꾸는 부와 명예, 건강, 편의, 영광을 다 가졌잖아요. 모두들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이 말하면 무엇이든 가져다주니, 당신은 진짜 행운아예요!” 그러자 그 왕자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신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오직 신만이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니까요. 신은 아주 자비로우시고 제게 정말 잘해 주시며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왕은 화를 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녀석! 나는 왕이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안락함과 부, 편안하고 멋진 삶을 주었다. 그런데 너는 내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은커녕 오히려 신한테 감사하는구나. 나는 신이 누군지조차 모른다! 너는 신을 본 적이 있느냐? 신이 네게 뭘 줬다는 거냐? 내가 다 주었는데도 그에게만 감사하다니. 왕은 나다. 너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왕자는 여전히 굽히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바마마께서 가진 부와 권력, 갖고 계신 모든 것도 다 신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오직 신께 은혜를 입을 뿐



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바마마! 저는 온 우주의 유일한 제공자이신 신께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자 왕은 더욱더 화를 냈습니다. “이 불효자식, 아직도 뉘우치지 않다니! 좋다. 누가 진짜 너에게 주는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나 없이 네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한 번 보자. 너의 신이 내가 네게 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당장 떠나라! 너는 저 멀리 떨어진 섬으로 유배될 것이다.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으며, 문명과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너의 신이 너를 살아남게 할지 보겠다.”

왕이 말을 마치고 명이 떨어지자 결재가 되어 봉해졌습니다. 왕자와 아내는 한 달 치밖에 안 되는 살림을 가지고 작은 배에 태워져 유배를 당했습니다. 왕자는 아내를 데리고 배를 몰아 섬에 도착했지요. 한 달이 지나 식량이 다 떨어지자 아내는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걱정 말아요! 신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셨소. 신은 우리를 계속 돌봐주실 것이요.”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앉아서 명상하며 무상사의 명호를 외웠습니다. 그러자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명상을 하고 있는데 검은 새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이어서 두 마리, 세 마리로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새떼 한 무리가 그들로부터 그리 멀지 않는 곳에 날아와 뭔가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검은 푸르고 안은 붉으며, 검은 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새가 먹을 수 있는 건 우리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맛이 있든 없는 새가 먹을 수 있다면 독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먹을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쪽으로 가서 새들이 먹다 남긴 것을 먹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와!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열매를 더 많이 얻기 위해 이 식물이 자라는 곳을 찾아 나섰지요. 하지만 멀리 갈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열매는 그들이 전에 가 본 적이 없었던 섬의 다른 쪽 어디에서나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왕자 부부는 그곳으로 가서 매일 과일을 구해 먹

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박에는 수분이 많았고 그 씨에는 단백질이 풍부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한 끼에 먹어야 하는 채소와 단백질에 맞먹는 단백질과 수분, 섬유소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수박을 먹으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매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들은 아무 걱정도 없이 행복했습니다. 왕자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생활이 궁전 생활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어. 궁에서는 비단과 금, 온갖 산해진미가 있었지만 규칙을 지켜야 하고 예의범절을 따르고 격식에 맞춰 옷을 입어야 하잖소. 또 항상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늘 왕자답게 입고 고귀하며 의젓하게 행동해야 하고 말이요.

왕에게는 항상 절해야 하고 아침저녁으로 왕에게 말할 때는 언제나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니까 무릎이 아프기도 했소. 그래서 나는 이 생활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오! 태양이 뜨면 일어나고 태양이 지면 하루 종일 명상하며, 아무 발길도 닿지 않은 백사장을 거닐고, 소나무 아래에서 당신과 손을 잡고, 달빛 아래서 노래를 부르며, 해변을 마음껏 거닐고, 이 100퍼센트 순수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세상에 걱정할 게 없으니 나는 온 나라,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이것과 바꾸지 않을 것이요.”

그러자 그 아내도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아요!”

그들은 이렇게 하루하루 매우 즐겁게 생활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이런 과일은 우리가 전에 살던 곳에서는 먹은 적도, 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맛있고 건강에도 좋고, 먹고 나선 기분도 좋고 시원해지니까 가능하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아무도 여기에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선 그것을 바다에 띄워 보내면 누구든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자 남편도 동의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요! 우리가 이 섬의 지도를 그리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외국으로 많이 가져가 먹을 수 있을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나뭇잎 위에다 솜으로 쪽지를 쓰고



수박에다 구멍을 낸 후에 그 안에 지도와 함께 쪽지를 넣은 다음 수박을 봉했습니다. 그리고선 수박들이 파도를 타고 각 방향으로 떠내려가도록 수박을 바다에 띄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상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수박을 건졌고 수박을 쪼개 안에 있던 편지를 보고 수박을 먹었는데, 매우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박을 얻고자 섬으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섬에 도착한 상인들은 수박을 가져가면서 기초 생필품 같은 것들을 대가로 주었습니다. 왕자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다 주었지요. 왜냐하면 당시 수박은 무척 맛있고 매우 희귀했으니까요. 왕을 포함해 그 누구도 먹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수박을 가져다 팔아서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수박이 아주 귀해서 사람들이 가격에 상관없이 돈을 지불했기 때문이지요. 특히 부자들은 얼마가 들든 수박을 구해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궁전의 관리와 왕에게도 바쳤습니다. 수박을 사기 위해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지불하였고 상인들은 왕자 부부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얼마 후, 섬은 큰 무역 중심지처럼 되었습니다. 왕자 부부는 그 과일을 돌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새들이 과일을 먹고 모래에 씨를 버리면 그곳에서 수박이 자라나서 일 년 내내 모든 사람들이 먹기에 충분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왕자 부부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전보다 더 부자가 되었지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수박과 맞바꾸기 위해서 온갖 선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들은 온 세상의 값지고 희귀한 것들은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왕자 부부는 돈을 받지 않았지만 모두들 왕자 부부가 이렇게 좋은 과일을 주어 고국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 것에 고마워하며 왕자 부부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왕도 그 과일을 맛보고선 어디서 온 것인지 물으며 더 많이 먹고 싶다고했습니다. 상인은 “더

가져올 수는 있지만 몇 달을 더 기다려셔야 합니다. 어떤 작은 섬에 가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 섬이 어디냐? 어떤 섬에서 이처럼 훌륭한 과일이 난단 말이나?”

그래서 그들은 “몇 년 전 왕자님을 유배 보내신 바로 그 섬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기억이 났습니다. 사실 왕은 왕자 부부를 자주 생각하며 그들을 많이 그리워했고 속으로는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전에 화낸 것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참회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들이 옳다고 생각한다. 신만이 유일한 제공자이시다. 신이 없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좋겠구나.”

그렇게 해서 과일 덕분에 왕은 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 날을 매우 성대한 국경일로 정해 큰 잔치를 열었고 모든 사람들은 한 달 내내 마시고, 춤추며, 행복하게 노래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두 달, 심지어 세 달 동안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왕자 부부는 엄청난 양의 수박을 가져와 왕과 왕실 전체에 선물했습니다. 또한 수박 종자도 가져와 그것을 재배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수박을 먹게 되었고, 언제나 수박을 먹을 때마다 신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또 그래야 마땅합니다.

이제 이 유래에 대해 알겠지요? 아주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그 왕자는 매우 훌륭한 수행자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후 왕은 신과 깨달음을 찾기 위해 여생을 보냈으니까요. 수박이 책보다 더 많은 걸 말해 줬던 거지요. 수박은 왕과 거의 모든 백성들을 깨닫게 해서 매일 신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단지 수박을 먹게 됨으로써 말이지요. 왕도 훌륭한 모범을 보여 더욱더 열심히 명상하고 기도하고 신을 기억하면서 신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



스승들이 하신 이야기는 깨달음의 선물

청하이 무상사/ 1992. 12. 27.-28. 포모사 산티먼 단체명상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300

스승들이 비유적인 이야기나 우화를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가 스승이 나타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고 스승이 계속해서 이론만 가르친다면 우리는 멍해져서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좋은 예를 들어 얘기해 주면 이해하기 쉽고 잊어버리지도 않지요. 이야기는 쉽게 잊어버리지 않지만 강연은 잘 잊어버립니다. 잘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강연은 쉽게 잊혀집니다.

반면 이야기는 기억하기 쉬워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야기에는 스승이 설명하고자 하는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스승들은 언제나 제자를 위해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실질적인 조언과 천상의 지혜가 담긴 많은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행하지 않고 스스로 그 이야기의 의미를 깨우치지 못한다면 읽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그저 동화나 농담으로 치부해버릴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읽은 한 유대 이야기에서 모세는 한때 어떤 스승에게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 스승은 모세가 이미 어렸을 때 배웠던 내용을 얘기해주었습니다. 아마도 같은 경전이나 이론이었겠지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승은 깨달은 사람이라서 깨달은 눈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모세가 이해하지 못한 깨달을 이해하지 못할 테지만 우린 그걸 이해합니다. 이를테면 스승은 때로 우리가 이미 아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음법문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승은 이 세상의 '선생님'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선생님들도 설교하거나 성경을 설명할 순 있겠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성경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스승을 따라 배우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와 거의 비슷하게 말할 순 있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은 스승을 따르는 좋은 점입니다. ❖

신이 우주를 운행하게 하라

청하이 무상사/ 1998. 12. 17.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 선삼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41

질문: 불교 전통에서는 ‘자비희사(慈悲喜捨)’의 사무량심(四無量心)을 수행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한 방법으로써 그것을 우리의 수행법과 함께 병행해서 수행해도 괜찮습니까?

스승님: 그것을 통해 기분이 좋아진다면 우선은 그것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우리 수행을 하십시오.

질문: 길을 걸거나 사람들을 볼 때 말인가요?

스승님: 나는 정말 그냥 오불만 외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사용해 사랑 같은 것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래 봤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니까요. 오불을 외우면 최고의 사랑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저절로요!

질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아직 진정으로 오불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천천히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과 선 행사나 오디오테이프에서 듣는 그 모든 신기한 감응, 그리고 당신이 사람들이나 나에게서 느끼는 사랑은 내가 가만히 앉아서 ‘나는 지금 사무량심을 일으켜 사방팔방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난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나는 신께서 우주를 운행하도록 하고 신께서 자비심을 보내도록 할 뿐, 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런 경지에 이르고 싶다면 사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불을 외우고 명상하기만 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자연스레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미 수백 년간 너무나 많은 것을 시도해 봤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자연스레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

신실한 감사가 신의 은혜를 가져온다

청하이 무상사/ 1998. 12. 17.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 선삼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41

질문: 저는 스승님에 대해 듣고 『즉각 깨닫는 열쇠』를 읽은 뒤로 줄곧 스승님 뵈기를 갈망해 왔습



나다. 여기 와서 보니 제 기대 이상이고, 제 주변의 사형사저들은 사랑이 넘쳐흐릅니다. 스승님을 뵈기 전에도 공중에 붕 뜬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스승님을 뵈고 나니 마음이 떨려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교인이었는데, 여기서 다른 무슬림 동수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 혼자인 줄만 알았어요!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스승님께서 오래도록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당신의 그 아름다운 마음에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여러분 모두에게 바라는 일입니다. 이완하고 근심걱정 없이 깨닫고 신의 은총에 감사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욱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며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께 감사드릴수록 더욱더 많은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렇게 순환되는 거지요. 축하합니다. 사형. 당신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

스승은 제자들의 신의식(神意識)을 반영한다

청하이 무상사/ 1998. 12. 17.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 선상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41

질문: 안녕하세요, 스승님. 사실 전 질문이 없습니다. 그저 스승님께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스승님을 뵈면서 스승님께서 얼마나 인내심 있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체험과 질문에 대해 주시는지 알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엔 스승님께서도 정말 휴가가 필요하시며 잘 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승님: 좋아요. 당신도 그러길 바랍니다. 고마워요. 난 괜찮아요. 이게 나의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참을성 있게 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건 여러분이 모두 참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참을성 없이 보인다면 그건 여러분 중 누군가 또는 몇몇 사람이 참을성이 없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런 참을성 없는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난 참을성이 많은 것도 아니고 참을성이 없지도 않습니다. 난 좋지도 나쁘지도 않으며, 자비롭지도 무자비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저 백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신이 하시는 모든 일은 여러분에게 이로운 것들입니다.

나는 백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을 쓰든 모두 여러분의 서명이 됩니다. 아무튼 격려해 줘서 감사합니다. 나는 스스로를 참을성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짓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떤 일도 미리 계획할 수 없습니다.

질문: 제가 스승님이었다면 5분 만에 나가 버렸을 겁니다.

스승님: 알아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신이 나를 이 자리에 딱 붙여 놓았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 말이지요. 당신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만약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언제나 백지 상태가 되지요.

질문: 예, 그런 경지에 이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될 것입니다. ❖

어려움은 삶을 살아가는 대가이다

청하이 무상사/ 1998. 12. 17.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41

질문: 제 사촌형은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제 우상이었고 저는 그런 형처럼 되고 싶어했기 때문에 그 동안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 저의 내면에 나타나 자신은 괜찮다고 말해 줬지요. 당시 저는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저도 자살하려 했거든요. 세상일에 대처할 수 없어서요. 그런데 작년에 신이 나타나셔서 자살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승님: 맞아요. 나도 항상 그렇게 말했지요.

질문: 예, 그때는 제가 스승님을 몰랐던 때였어요.

스승님: 신이 당신에게 그렇게 말해 주셨다니 잘 됐군요.

질문: 신은 또 아직 제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제게 중요한 임무가 있다면, 누군가가 제게 그 일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주 뒤에 스승님을 소개하는 전단지를 받았지요. 그때 2주 전에 신이 말씀하셨을 때와 거의 똑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스승님: 잘 됐군요.

질문: 사실 저는 전에는 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신기했습니다. 지금 스승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간질이 있는데 이 병이 저의 가족과 관련이 있나요? 가족의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습니까?

스승님: 예. 그건 공업(共業)이기도 하고 유전적이기도 합니다.





질문: 이 때문에 저는 우울해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스승님: 당신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신이 당신에게 괜찮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괜찮은 겁니다. 당신은 신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믿겠습니까? 두뇌는 항상 부정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이제 전 신을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발작을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나요? 한 번은 명상 중에 발작이 일어났거든요. 상황이 너무나 끔찍해서 그후 며칠 동안은 신심을 잃었습니다.

스승님: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질문: 그러면 이것이 정상인 건가요? 원래 그런 건가요?

스승님: 예. 그건 정상이고 원래 그런 겁니다. 삶이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당신에겐 간질병이 있고 다른 이는 천식을 앓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대가입니다. 알겠어요? 너무 비판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질문: 사촌형처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스승님: 그래요. 그를 따라해선 안 됩니다. 그는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실수에다 어리석은 짓을 한 것입니다. 자살은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당신은 그를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보다 높은 목표와 아름답고 멋지고, 긍정적이고 고귀한 이상을 추구해야지 그런 어리석고 나쁜 행동과 저급한 생각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 스승님 덕분에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스승님: 보세요. 당신은 이미 많이 진보한 거예요!

질문: 게다가 채식도 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일들이 3주도 안 돼서 이루어졌습니다.

스승님: 겨우 3주 만이에요? 좋아요.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이 그런 훌륭한 모범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도 담배와 다른 것들을 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이렇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질문: 지금까지 제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저와 완전히 반대라서 참 힘들었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때로 우리는 매우 특별한 선택을 하고 여기에 오지만, 이곳에 오고 나신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결정했던 특별한 선택이 이곳에서는 장애나 짐처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축복은 수많은 여러 가지 방식과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척박한 땅에서 가장 튼튼한 나무가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정한 선택이나 우리가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너무 고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결국 환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 대신 이 생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들과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해



야 합니다.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 아주 작아서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는데,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만난 사람들은 내가 작다는 이유로 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에 나를 놀렸던 사람들이 한심했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사실 삶의 모든 일들은 나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수행하기 위해 보다 힘든 길을 선택합니다. “좋아. 난 키가 작거나 뚱뚱한 사람이 되겠어. 아니면 유별나게 키가 큰 사람이 되겠어. 아니면 보다 빨리 진보하고 더 빨리 신을 찾기 위해, 또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신을 찾도록 돕기 위해 장애를 갖고 태어나겠어.” 우리는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와서 인간의 두뇌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자신의 선택이 너무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다고 생각하는 마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신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가거나 진실로 깨닫게 되면 우리의 걸모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천국을 찾을 수 있고 그 무엇도 진정한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외적인 결함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걸치고 있는 옷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 일이고, 깨닫고 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따라 옵니다.

이 이야기를 해줬는지 모르겠군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꿈추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간에서 장차 아내가 될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반면 그의 몸은 기형이었지요. 그는 사랑에 빠져서 그녀에게 구혼을 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를 업신여겼지요. 그러자 그가 물었습니다. “결혼이란 천국에서 정한다는 걸 믿습니까?” 그녀는 대답했어요. “예! 그런데 그건 왜 묻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혼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결혼은 이미 하늘에서 정해진 겁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고 그녀가 따지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억나지 않소?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신께서 우리 둘 중 하나가 꿈추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당신이 되어야 했지만 내가 대신 하기로 했지요. 난 신께 ‘신이시여, 여자가 꿈추가 된다는 건 너무나 비참한 일입니다. 저를 꿈추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고 당신은 아름다운 여자가 된 것이요.”

그제서야 그녀는 이 말에 감동하며 그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게 기억났습니다. 그는 분명 성자였을 겁니다. 나중에 그들은 결혼해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그걸 모르는 것뿐이지요. 어느 날 혹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이 빛을 알려 주십시오. ❖



명상을 통해 삶이 연극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파하라

칭하이 무상사/ 1998. 12. 16.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39a

질문: 제가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록 선택하는 데 있어, 스승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승님: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건가요?

스승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이니까요. 적어도 신의 자녀들이지요. 그러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고,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집에서 청소하고 남편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할 수도 있었지만, 다른 것을 하기로 선택했고 그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나는 작은 사람이라 작은 결정을 내렸지만, 여러분은 나보다 크니까 더 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그럼, 이 환상 속에 살면서도 일어날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까?

스승님: 물론이지요. 환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구체적이고, 바꿀 수 없는 진짜라면 바꾸기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삶을 환상이라 생각하고 언제나 즐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삶이 환상이라는 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그들은 겉으로는 강한 것처럼 보여도 환상 속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측면에서 사물을 보고 거기에 맞춰 살 것인지, 아니면 바꿀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자신의 미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현재를 바꾸십시오. 현재를 바꾸지 않는다면, 미래의 결과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사실 그건 아주 쉽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다른 이들을 해치거나 나쁜 일이 아니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는 환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는 환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만, 사회가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의 양심을 불안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으며 이 세상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거나 해야 마땅한 일이란 게 없으며,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가령 영화를 보러 가면 클린트 이스트우드나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그가 그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압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나 톰 크루즈 또는 그 누구든 영화 속 인물이 아닙니다. 영화에서 볼 때는 그가 바로 영화 속의 인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단지 연극일 뿐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영화를 보듯 이 삶을 분명하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계속 명상하고 분명해질 때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크게 깨닫게 됩니다. ♦

채식은 우리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한다

청하이 무상사/ 1993. 5. 22. 일본 동경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375

질문: 동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인간에게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동물은 모두 죽거나 슬로 없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스승님: 아니오. 인간이 먹고 싶어서 동물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보다 강하고 똑똑해서 동물이 우리에게 대적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다른 선택을 통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우리의 힘과 지성을 이용해 우리보다 약한 존재들을 학대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소와 돼지, 닭들을 점점 더 많이 키우기 때문에 동물들도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과학 연구에 의하면 동물을 기르는 데 엄청난 시간과 돈, 땅이 소모되는데, 이것이 우리 행성의 경제와 재정을 약화시키고 심지어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많은 황무지와 사막들이 생긴 것은 과거 가축을 기른 결과라고까지 합니다. 소를 키운 땅은 대부분 곡물을 경작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소나 다른 가축들을 키우려면 넓은 땅이 필요하고 가축의 배설물은 우리의 강과 호수들을 오염시킵니다. 동물들에게 먹일 목초와 기타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땅에 뿌린 비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축업에 들어가는 항생제와 의약품들, 가축을 씻기는 물, 그리고 모든 위생 시설에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소모됩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이 세상에 손해인 것이며 우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뭘 먹으라고 할 순 없지만, 연구에 따르면 육식은 경제적, 재정적, 정치적, 건강적인 측면, 또는 다른 모든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육식에 따른 도덕적 의무와 죄책감에 대해선 말도 꺼내지 않았습시다! 그저 과학적인 측면과 관점만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태어날 때부터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대한 위대한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살을 먹으면 무의식적으로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런 죄책감은 질병과 온갖 불편한 느낌, 생활 속의 불행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로 행복한 삶, 진정으로 자유롭고 근심걱정 없는 삶을 원한다면 다른 살아 있는 존재들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권하는 것입니다. ❖

*스승님 말씀을 뒷받침하는 증거들

1. <http://www.animalliberationfront.com/Practical/Health/101%20Reasons%20to%20go%20Vegetarian.htm>
2. <http://www.tqnyc.org/NYC052139/Africa.htm>
3. http://www.earth-policy.org/Books/PB/PBch1_ss4.htm
4. <http://www.rcfa-cfan.org/english/issues.12-6.html>



채식으로 사막화를 예방하자

레프키 파블리디스 사저/ 호주 브리즈번 (원문 영어)

“버려진 많은 땅과 사막들은 과거 동물을 사육한 결과라고들 합니다. 소를 사육했던 땅은 대부분 곡물을 재배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나는 아직 육식에 따른 도덕적 책임과 죄책감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학적인 면에 대해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동물들이 존재하는 목적과 동물이 인간에게 잡아먹혀야 하는가에 대한 한 청중의 질문에 대한 위와 같은 스승님의 답변처럼, 육식은 인류 건강에 해롭고 동물의 생명을 빼앗을 뿐 아니라 지구의 환경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육식으로 인한 소, 양, 염소 그리고 다른 가축들의 과도한 방목은 토지를 사막화하거나 황무지나 불모지를 사막으로 변화시킨다.

오늘날 육류에 대한 세계적인 높은 수요로 인해 방목을 위한 거대한 목초지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원래 토양에 있던 식생층(植生層)을 고갈시켜 비바람에 의한 침식을 쉽게 일으키며 표토의 영양분이 빠져 곡물이 자랄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예를 들어 북쪽의 사하라 사막과 남쪽의 다소 비옥한 지역 사이에 있는 아프리카 사

헬(Sahel) 지대의 사막 지역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1950년대부터 1975년 사이에 100km나 늘어났다. 이는 과도한 방목과 토양 침식이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 준다.

최근 수십 년 간 인간의 육류 수요량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지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일들을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50년부터 2002년 사이 중국에서 소, 양, 염소의 수가 세 배로 늘었다. 이러한 동물들이 중국의 서부와 북부 방목 지역의 식생 보호층을 집단적으로 파괴하는 데 이어 강한 바람이 노출된 토양을 날려 버려 이 지역은 사막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루 만에 수백만 톤의 표토가 사라질 수도 있다. 모래 바람과 사막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현지 농민들의 땅을 잠식하기에 이르렀고, 이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인류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육류 소비량을 늘인다면, 가축을 키우기 위한 땅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비옥한 땅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사막이 더욱더 넓어지며 안 그래도 취약해진 환경에 더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아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다. 이름 높은 과학 사이트인 www.worldwatch.org는 “사막화로 인해 전세계 약 1억 3천 5백만 명이 자기 땅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인류가 채식으로 전환하기만 하면 방목지를 만들기 위한 벌목이 중단될 것이고, 현재 곡물 생산량의 약 70%가 가축 사육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곡물을 재배하기 위해 필요한 땅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호주 퀸즐랜드(Queensland) 주에서만 무려 95%에 이르는 숲이 벌목되어 가축을 방목하기 위한 목초지가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채식을 하게 되면 목초지로 사용되던 많은 지역이 다시 조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온실 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고, 토양 침식, 강수 형태가 개선됨으로서 산사태나 극심한 홍수로 인한 자연 재해 발생이 줄어들게 되어 환경이 크게 나아질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인류는 이제 지구의 귀중한 대지와 동

물 형제자매들에 대한 잔인한 공격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관음 수행자인 우리는 타인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채식을 하는 고귀한 삶을 살고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 속히 채식을 하고 더불어 자비롭고 자연 친화적인 생활 습관으로 바꾸도록 기도함으로써 이 과정을 도울 수 있다. 현재 스승님이 세계의 의식을 더 높은 경지로 고양시키셨으니 스승님의 끝없는 은총과 축복 속에 인류가 보다 자비롭게 동물을 대하고 대자연을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 ❖

참고:

<http://www.botany.uwc.ac.za/Envfacts/facts/desertification.htm>
http://www.earth-policy.org/Books/PB/PBch1_ss4.htm
<http://www.ciesin.org/docs/002-193/002-193.html>
<http://www.worldwatch.org/pubs/sow/2005/tocid/225/>
<http://www.viva.org.uk/guides/feedtheworld.htm>
<http://www.bodyfueling.com/ARTICLES/GMOs1.html>
<http://www.nrm.qld.gov.au/slats/report.html>



육식만 포기해도 세상을 구한다

청하이 무상사/ 1989. 10. 13.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101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아무도 죽이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가축을 기르지 않을 것이며, 모든 음식이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주어져 사람들을 더 건강하고 강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모든 나라에 유익하며 이 나라에도 유익합니다. 우리는 무기와 가축 사육을 위해 엄청난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작할 수 있는 대부분의 땅은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을 사육하는 데 소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땅에 유익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경작한다면 국가에 더 큰 이익이 되고 이 나라도 더 평화로워져서 군사 방어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모든 나라에서 '살생하지 말라, 흠치지 말라'와 같은 성경이나 불교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세상은 더 이상 평화 회의를 열 필요가 없을 것이며, 많은 커피와 삼페인, 케이크 등을 들고도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는 회의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논할수록 더욱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모두가 명상 수행을 하고 살생과 무관한 건전한 식사를 한다면 세상은 오래 전에 평화롭게 되었을 것이며 굶주리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퍼주지 않아도 육식 위주의 식생활만 포기하면 충분히 우리 자신과 국가의 건강을 지키고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칭하이 무상사/ 1994. 9. 28. 싱가포르 단체명상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446

오늘날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로 일 년에 약 1,8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주의해서 신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몸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이 육신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고 우리가 자신의 전능한 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담배를 많이 피고 술을 많이 마시며, 육식도 너무 많이 해서 고기 속에 든 온갖 세균들을 우리의 몸으로 불러들이는 행동을 합니다. 이 모든 치명적인 요소들은 우리 삶을 아주 비참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좀 더 절제 있는 생활을 하고 우리의 몸을 좀 더 소중히 여긴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입맛에 따라 먹지 않으며 적당량만을 먹는다면 당연히 우리 건강은 그렇게 위태롭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더 건강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중: 예.) 여러분 대부분이 입문을 하고 채식을 한 후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중: 그렇습니다.) 사실 병원에는 고기 먹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중 웃음) 이게 바로 의심할 여지 없는 증거지요.

단순히 채식 그 자체가 몸에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채소의 진동이 우리의 몸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물의 진동은 그렇게 조화롭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않지요. 사실 단순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약과 주사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한 물질을 몸에 집어넣어 스스로 몸을 망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하고 영양 많고 건강한 삶을 사는 법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의사도 그리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들도 휴일이 많아질 테니 의사와 우리 모두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지요. ❖



모든 생명을 존중하면 우리 삶도 축복을 받는다

칭하이 무상사/ 1989. 11. 29. 파나마 기자의 집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106

우리는 신의 계획에 의해 창조된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고통과 죽음에 저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동물을 죽이는 모습이나 죽임을 당하는 동물을 본다면 그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도망가려 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는 신이 그들에게 생존 본능을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해치고 빼앗으려 한다면, 그것은 신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대우받고자 하는 방식으로 모든 존재를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은총을 받아 장수하고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



마음으로 가꾸는 유기농 텃밭

매튜 서피스 사형 / 호주 케언스 하이랜드 (원문 영어)

뉴스잡지 161호를 읽은 후 나는 우리 지구를 고양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스승님의 위대함과 우주의 광활함에 비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지극히 작은 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식이 계속해서 확장됨에 따라 우리는 인류가 오랫동안 경험해 온 낡은 모습이 아닌 사랑과 이해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스승님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직관을 따르고 깨달음의 새로운 시대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우리 환경을 돌보고 우리의 사랑을 만물에게로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각자는 전체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의 행동은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오늘날 많은 농민들이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우리 건강에도 해롭다. 또한 이런 비유기 화합물은 대부분 석유 화학제품이나 하수 처리장의 침전물로 만들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영양 불균형은 토양의 질을 떨어트린다. 또한 이런 화학비료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소량이라 해도 이는 대부분의 생명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유기농으로 채소를 재배하면 이런 문제들은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 유기농 재배는 생각보다 간단해서 약간의 흙과 햇빛, 물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면 유기농 텃밭은 거의 손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먹을 것을 제공하는 식물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경험인지 알게 될 것이다.

식물에게도 지능과 감정이 있기 때문에 텃밭을 가꾼다는 것은 좋은 친구가 생기는 것과 같다. 텃밭은 매일 신선한 유기농 음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장 보는 비용도 덜어 준다. 또한 운동도 되고 야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심신의 건강에도 더욱 이롭다.

텃밭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뒤뜰이 있으면 잡초만 뽑으면 채소를 심을 수 있다. 뒤뜰이 없다면 화분에 채소를 길러

먹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화분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물을 열심히 주어야 한다. 화분은 땅보다 수분이 잘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또한 유기 배양토나 질 좋은 혼합토를 사용해서 채소를 심어야 한다.

뒤뜰에 텃밭을 만들 때는 무작정 풀을 없애지 말고 유기농 방식으로 풀을 제거하면 땅에 유용한 복토(覆土)를 남겨 둘 수 있다. 예를 들어 풀을 아주 짧게 베어낸 후 베어낸 풀과 낙엽, 나무껍질, 신문지, 또는 건초 같은 것들로 땅을 덮어 주면 서서히 썩어서 밭을 비옥하게 만든다.

보다 넓은 텃밭을 가꾸려는 경우엔 검은 비닐로 풀을 덮어 주니 효과적이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땅을 비옥하게 하는 지렁이, 박테리아, 균류 식물 같은 생물들이 없어지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다시 돌아온다. 기온의 높고 낮음, 그리고 비닐에 대한 일조량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풀을 덮은 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풀의 상태를 확인해 본다. 풀이 갈색으로 변해 다시 살아날 것처럼 보



유기물이 풍부한 퇴비가 되고 있는 중인 복토.



복토와 잘 섞인 좋은 토양.

이지 않으면 소똥을 주거나 음식 찌꺼기로 만들어진 퇴비(주) 같은 유기 비료를 줘도 된다.

텃밭의 크기에 상관없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석분(石粉)이라고 알려진 미네랄 성분을 뿌려 주는 것이다. 이 미네랄 성분은 종묘상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갈퀴로 혼합비료와 미네랄을 흙과 섞어 주고 물을 흠뻑 준다. 이렇게 하면 땅은 손으로 팔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부드러워질 것이다. 그래도 부드럽지 않다면 비료와 베어낸 풀, 또는 썩은 나뭇잎을 더 많이 섞어 준다. 종묘상에서 파는 일종의 칼슘인 석회분을 더해 줘도 거친 흙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한 다음 일주일 정도 흙을 쉬게 한 후 채소를 심으면 된다.

채소를 심을 때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자라는 채소의 씨앗을 사야 한다. (씨앗 포장지를 보면 이와 관련된 설명이 있다.) 그리고 유기농

씨앗을 선택하도록 하고 적어도 교배종이라고 적혀 있는 씨앗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유전자 변형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농작물은 충분한 햇빛과 물이 있어야 잘 자라며 심기 전에 씨앗 포장지에 적혀 있는 식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면 좋다.

일반적으로 땅에 중요한 질소 영양분을 제공해 주는 콩이나 콩과(科) 식물을 먼저 심은 후 토마토 같이 양분이 많이 필요한 식물들을 심는다.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파슬리를 많이 심으라는 것이다. 파슬리는 영양가가 높을 뿐 아니라 바깥 잎들을 계속 따 주기만 하면 2년까지 먹을 수 있다.

씨앗이 발아해 잘 자라면 흙과 농작물 사이에 복토나 건초, 잡초 자른 것을 덮어 주되 농작물은 덮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유기물들이 분해되면서 열이 발생해 농작물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윤작을 하도록 신경 써야 한다. 같은 곳에 같은 식물을 연속해서 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채소들을 보면서 말을 걸어 주고 사랑을 주며 스승님의 불찬 테이프를 들려주면 채소들이 잘 자라는 데 도움이 되고 해충에 대한 저항력도 커진다. 그러면 텃밭은 풍부한 수확으로 보답할 것이다. 작은 텃밭이라도 소가족이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약간의 인내심과 많은 사랑을 들이고 가끔씩 식물들과 대화를 나눈다면 텃밭의 식물들은 아주 잘 자라게 될 것이며 키우는 사람도 이로 인해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 또한 주변 환경과 식물 왕국의 친구들에게 사랑을 나누다 보면 스승님께서 얼마나 기꺼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나누어주시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

주: 퇴비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www.compostguide.com>

http://www.gardenorganic.org.uk/organicgardening/gh_comp.php

필자가 키운 채소들-호박,
주키니, 수박, 열대 고추.



조류 독감에 대한 고찰

축복 받은 자/ 포모사 미아오리 (원문 중국어)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류 독감은 새에게서 발견된 바이러스로 파생된 질병이다. 하지만 이 질병은 다양한 포유동물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 인간이 조류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초기 증상은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비슷하지만, 열이 약 41도(화씨 105.8°)까지 올라갈 수도 있으며 간이 손상되기 쉽고 림프 세포의 수가 줄고 호흡 곤란이 일어나며 신체 기능이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 조류 독감을 바라보는 견해는 매우 다양하다. 일부에선 거대한 위협으로 여겨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며 일부 다른 사람들은 이익을 보려는 제약회사들 때문에 과장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로써 채식을 하도록 호소한다. 아마 모두의 의견은 일정 부분 진실에 근접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한다.

우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 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작은 바이러스이다. 종이에 펜으로 점을 하나 찍었을 때 그 점에는 1억 개의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 바이러스는 인류가 출현하기 훨씬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인류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변화하는 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

해 분투해 왔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돌연변이'라고 칭하면서 마치 변형된 바이러스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동적으로 출현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유기체들은 수천 년에 걸쳐 '의식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 동안 인간은 보통 식물과 동물, 심지어 미생물에게도 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 왔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조류 독감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해야만 한다. 바이러스는 박테리나 다른 미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상호 생존을 위해 인류와 공생, 공존하고 있다. 인간의 소

화기관은 입부터 대장까지 박테리아로 가득 차 있으며, 바이러스 역시 인간의 피부와 신경과 같은 다양한 기관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은 이러한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친구로서 소화 기관이 원활히 기능하도록 돕고 우리의 면역 체계를 자극해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우리의 몸을 분해하는 청소부의 역할을 해서 우리가 땅으로 돌아가도록 자연의 정화를 돕는다. 이렇게 미생물들은 생물계가 생명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박멸되어야 할 남아도는 기생체가





아닌 것이다.

바이러스들은 자연 법칙에 따라 적당한 숙주를 찾아 성장하고 번식하며, 생명체들이 조화롭게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러나 인류가 자연을 파괴해 서식지를 잃게 된 바이러스들은 어디에서든 생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사람들이 터전을 잃고 강제로 이주 당하는 것과 같다. 사람들도 이주 1세대는 낯선 땅에 적응하느라 고생하지만 이주지에서 태어난 2세대는 점차 정착하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또한 새로운 숙주에 정착하게 되면 생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인간은 불행히도 대개 실수로 문제를 만들어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낳는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은 그 좋은 사례이다. 사스는 6개월 만에 29개 국가에서 발생해 8,400명을 감염시켰고 그 중 813명이 사망했다. 아시아에서만 400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고, 이로 인한 정신적 감정적 피해는 수치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를테면 사스 환자와 가족들은 마치 중세 시대에 비참한 대우를 받았던 나환자들을 연상케 하는 두렵고 위험한 괴물 취급을 받고 일반 대중들의 기피 대상이 되었다.

최근 과학자들은 사스가 발생하게 된 가장 가능성 높은 원인이 박쥐가 옮기는 기생 바이러스에서 비롯된다고 결론지었다. 이 바이러스가 나중에 사향고양이에게 기생하게 되고 다시 인간이 이 고양이를 잡아먹음으로써 전염된다는 것이다. 비록 극소수만이 사향고양이를 먹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인류에게 거대한 재앙을 초래했다. 이는 자연의 균형을 파괴하면 조만간에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만일 인류가 이러한 사건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조류 독감은 더 큰 재난이 될 수 있다. 현재 잘못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독을 마시는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사용되는 예방 조치는 가금류를 대량 학살하는 것인데, 1997년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해 18명이 감염되고 6명이 사망하자 사흘 만에 닭 150만 마리가 도살되었다. 올해 또 조류 독감 경보가 발생하자 바로 약 1억 5천 마리의 가금류가 도살되었으며, 그 중 상당수가 산 채로 불에 태워졌다. 만일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면 이 생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과연 인류는 이런 행위에 대해 강력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어쩌면 중요성을 품고 죽어간 새들이 언젠가 복수할 것이라는 사실은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 죽은 동물들에 기생했던 바이러스들이 생존 본능에 따라 새로운 숙주를 찾으리란 사실도 무시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는 돼지가 그 새로운 숙주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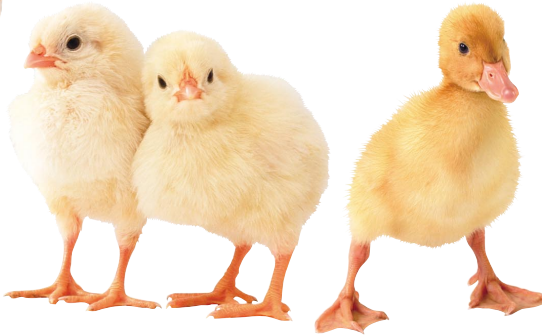
있다. 그럼 또 돼지를 다 죽여야만 하는가? 돼지를 다 죽이고 나면, 다음 차례는 또 어떤 동물이 될 것인가?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 결국엔 인간의 차례가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많은 힘없는 가금류가 왜 죽여야만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현대의 축산업은 고기 값을 낮추려고 비좁은 공간에서 많은 동물들을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 한 마리만 병에 걸려도 병이 빠르게 확산된다. 그런데 인간은 무력한 가금류를 희생해야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광우병, 구제역, 사스, 조류 독감은 모두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어겨서 생긴 질병인데도 이로 인해 많은 동물들이 애꿎은 생명을 잃었다. 우리 인간은 단지 우리의 미각을 만족시키고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동물에게 했던 그대로 동물도 우리를 대할 것이다. 작은 바이러스조차 살려는 의식이 있으니 동물은 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인간에게 삶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가 존중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정신을 자연계의 모든 존재에게로 확대하고 창조자를 숭배하며 모든 생명체를 존중해야 한다. 모든 동물을 우리 친구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돌보도록 하자. 그러면 그들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과 경이로움을 돌려줄 것이다.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

조류 독감

-인류에 대한 자연의 경고장



미국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일명 조류 독감이라고 알려진 조류 인플루엔자의 잠재적 확산 가능성은 공중위생에 있어 인류가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위협 요소 중의 하나이다. 닭이나 오리 등 유행성 독감에 걸린 동물을 도살하거나 먹으면 인간 또한 이 질병에 감염된다.

어째서 육식이 전세계적 조류 독감 유행병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인플루엔자는 육식 산업과 아주 오랜 관련이 있다. 최초의 인류 독감 바이러스가 가축이 밀집된 가축우리와 도살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1959년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24건의 치명적인 고병원성 조류 독감(High Pathogenic Avian Influenza)이 모두 양돈장과 양계장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1997년에도 세계적인 유행성 독감으로 촉발될 뻔했으나 홍콩이 닭을 모두 몰살시킴으로써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다. 이 사태를 지켜본 세계보건기구(WHO)는 양돈장과 양계장의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를 추적, 조사하는 전세계 인플루엔자 감시망(Global Influenza Surveillance)을 구성했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발전되기까지는 열 번의 특정한 변종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변이가 발생하는 이상적인 환경은 돼지, 닭, 오리 사육장이라고 말한다. 그 중 돼지는 조류 독감과 인간 독감 양쪽 모두에 감염되기 쉽다. 실제로 과거에 발생한 몇 차례의 유행 독감에서 돼지는 바이러스 변종을 일으키는 ‘중간 매체’ 구실을 했고 이렇게 발생된 변종 바이러스는 돼지와 인간을 끊임없이 전염시켰다. 한 예로 2005년 7월 중국 쓰촨성에서 발생한 돼지 전염성 바이러스는 수백



명의 감염자와 40명의 사망자를 내기도 했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조류 독감 바이러스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돼지, 닭, 오리 등 식용 동물들을 대량 사육하는 중국의 주강(珠江) 삼각주를 발견했다. 한 집계에 의하면 이 지역의 시장에서는 134종의 동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바이러스로 들끓는 피와 배설물이 시장 곳곳에 흥건하게 고여 있다고 한다. 살아 있는 동물들을 상자 속에 뽁뽁이 가둬 놓고 사료와 물도 주지 않으며, 때로는 산 채로 껍질을 벗기거나 도살하기도 한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동물들의 면역 체계는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고, 병을 가진 동물들이 서로 섞여 있는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여러 종(種)을 감염시켜 현재 약 75종이 감염되기에 이르렀다.

미 외교 협회 국제 건강 선임 연구원이며 『다가오는 세계적 전염병(The Coming Plague)』이라는 저서로 폴리처상을 수상한 로리 가렛(Laurie Garrett)은 인간이 먹이 사슬의 최종 소비자로 남아 있는 한,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먹이 사슬에서 변이를 일으켜 '방대하고 처리하기 힘든'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다.

대재앙의 역사

동물의 뼈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은 많은 질병의 발생 시점을 1만 년 전 인류가 동물을 가둬 키우기 시작한 때라고 추적했다. 그 당시 동물의 발 뼈가 현재 가축의 발 형태로 변형되는 동안 인간은 결핵, 천연두, 독감 등 가축에서 파생된 질병으로 계속 죽어갔다. 같은 시기에 비인성(非人性) 질병인 구제역 같은 병도 나타나 동물들이 한꺼번에 몰살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미 육식에 의존하게 된 인간은 영양실조와 기아에 부딪히고 저항력도 약화되었다. 이처럼 인간은 수세기 동안 직접, 간접적으로 육식으로 인해 그 어떤 자연 재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보다 심각한 대재난을 겪어 왔다.

현재 세 명 중 한 명 꼴로 사망하는데, 그 대부분의 전염병이 동물로부터 전염된 것이며, 새로 출현하고 있는 질병의 3/4 역시 동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반면, 전통적으로 다른 민족과는 달리 동물을 가둬 키우지 않았던 미국 인디언은 유럽인이 미 대륙에 상륙하기 전까지 거의 전염병에 걸린 적이 없었지만 유럽인이 상륙한 후 유럽 동물로부터 파생된 질병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북미와 남미의 원주민 중 90%가 사망하게 되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개발도상국의 10대 사망 원인 중 대부분이 동물에서 파생된 질병이며, 그 중 1위는 에이즈이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원숭이와 침팬지 고기를 매매하는 사람에게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지금까지 6,500만 명을 감염시키고 2,500만 명을 사망케 했다. 과학자들은 SIV라는 원숭이 바이러스가 HIV 바이러스로 전이되기까지 사냥꾼과 유인원 간에 적어도 일곱 번 이상 종(種) 교류가 일어났다고 단정했다. 이는 대부분의 바이러스 전이가 사냥으로 인해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한다.

폭력의 악순환

일반적인 조류 독감 예방법은 질병을 옮기는 닭을 죽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병이 유행했을 때 약 백 오십 만 마리의 가금류가 도살되었다. UN의 한 조사 항목에 따르면 조류를 도살하는 통상적인 방법은 몽둥이나 쇠파이프로 때리거나 비닐봉지에 넣어 산 채로 매장하는 것이었다. 일부에선

우리에 휘발유를 붓고 산 채로 태워 죽인 후 묻어버리기도 하고 이산화탄소 가스를 사용해 칼로 찢는 듯한 극심한 고통 속에 서서히 죽이기도 했다.

죽음의 게임

양계장을 제외하고 조류 독감이 인간에게 감염될 수 있는 또 다른 경로는 오리 사냥이다. 오리는 야생 조류 독감 바이러스의 주요 보균자인데, 사냥꾼들이 오리를 쏘아 죽이면 그 사체와의 여러 가지 접촉을 통해 이 바이러스가 퍼져 나간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인간은 사냥을 통해 동물의 병을 인간과 가축에 퍼뜨려 왔다.

올해(2005년) 조류 독감의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조류 사냥을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사냥꾼들은 대부분 이런 금지령을 무시한다. 레바논의 한 수렵 담당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사냥꾼들은 정부를 불신해서인지 금지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조류 독감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저 사회 활동이나 경제 활동일 뿐이라고 믿는다.”

조류 독감은 외래종 조류 무역을 통해서도 유포된다. 조류 독감에 걸린 몇몇 새들은 영국 관료들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서 잡아 온 것이었고, 조류 독감에 감염된 싸움닭이 중국에서 몰래 반입되기도 했다. CITES(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의 수석 과학자 데이비드 모건(David Morgan)은 이렇게 말했다. “단 한 마리 표본만 있어도 병을 유포시키는 그물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밝은 미래는 가능하다

보건 관계자들이 조류 독감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수십 억 달러를 소비하고 수억 마리의 가금류를 희생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대량 학살 외에 더 나은 적당한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채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가게나 슈퍼마켓에서 고기를 살 때 스스로에게 물어 봐야 할 것이다. “이 살코기 한 점이 전세계에 유행병을 돌릴 만큼 가치가 있는가?” ‘약육강식’은 자연 법칙이라고 결론짓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인류가 길들인 개의 사례를 기억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은 개에게 겨우 음식과 거처를 나눠주고서 ‘적’이었던 동물은 안내자, 보호자, 그리고 ‘최고의 친구’로 바꿔 놓았다. 그러니 소, 돼지, 닭과 같이 온화한 동물들을 친구로 만드는 것은 얼마나 쉽겠는가! 먹을 것을 위해 이런 동물들을 도살하는 짓은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행위이다. 그러므로 조류 독감 문제가 하루 속히 보다 인도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길 희망한다. ❖

참고:

1. http://www.ncbi.nlm.nih.gov/entrez/query.fcgi?cmd=retrieve&db=pubMed&list_uids=11516376&dopt=Citation
2. <http://www.fsa.org/irp/threat/nie99-17d.htm>
3. <http://content.nejm.org/cgi/content/full/353/13/1374>
4. <http://www.unaids.org/epi2005/index.html>
5. <http://bioanthropology.huji.ac.il/pdf/2.pdf>

개의 애정 어린 행동이 상처 치유에 도움을 준다

줄리 치우 사저/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원문 영어)

개가 좋아하는 상대를 핥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어미 개가 새끼들을 사랑스럽게 핥아주기도 하고 개들이 주인을 핥기도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개가 핥는 것을 싫어하며 개의 타액이 비위생적이라고 여기는데, 실제로는 그와 반대이다. 건강한 개의 타액은 해가 없을뿐더러 항균 성분이 들어 있어서 상처를 치유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학 잡지 『알래스카 과학 포럼(Alaska Science Forum)』은 최근 “개의 타액: 차세대 기적의 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1990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들의 실험 결과를 다루었다. 이 실험에서 개의 타액이 해로운 박테리아인 이 콜리(E. Coli) 대장균과 연쇄 구균을 죽이는 게 발견되었다.

또한 런던 성 바르톨로뮤 왕립 치의과 대학(St. Bartholomew's and Royal London School of Medicine and Dentistry)의 나이젤 벤저민(Nigel Benjamin)은 자신의 논문에서 인간의 타액에도 상당히 많은 아질산염(이산화질소)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화학 물질은 또 다른 강력한 살균제인 산화질소로 전환될 수 있다. 벤저민은 열 네 명의 건강한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자기 손을 살살이 핥도록 한 후 그들의 피부에서 산화질소의 양을 측정하였다. 손을 핥은 후 피부의 산화질소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 “타액의 아질산염이 피부에 닿으면서 산화질소로 바뀌어 상처를 핥을

때 살균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뉴스 웹사이트인 아이씨웨일즈(icWales)에는 개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주인의 다리 치료를 도운 놀라운 이야기가 실렸다. ‘마일로’라는 이름의 잭 러셀 테리어 종의 개 주인인 미치 본햄 씨는 뜻밖의 산업 재해로 큰 부상을 입은 후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기간 동안 외상성 골다공증(Sudeck's Atrophy-수데크 위축증)이라는 병이 생겨 신경이 손상되었고 다리 근육이 변색되며 마르기 시작했다. 본햄 씨의 주치의는 다리를 절단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직한 마일로로는 한 번에 몇 시간씩 주인의 아픈 다리를 계속해서 핥아주며 다리를 낮게 하려고 애썼다. 이렇게 5주 동안 개의 ‘핥기 요법’을 받은 후, 다리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든 본햄 씨는 다리 근육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주치의는 깜짝 놀라며 이것이 모두 마일로가 다리 신경을 자극해 주인의 병이 낫도록 도와준 것임을 알게 되었다.

정말 충직하고 인내심이 강한 마일로는 다리가 썩으면서 참기 힘든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주인의 아픈 다리를 핥아 주며 주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 사랑을 실천한 이 순수한 동물의 아름다운 일화에서 우리 인간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http://www.gi.alaska.edu/ScienceForum/ASF12/1234.html>

<http://www.people.virginia.edu/~rjh9u/licking.html>

http://icwales.icnetwork.co.uk/yourwales/weirdwales/tm_objectid=15533213&method=full&siteid=50082&headline=dog-milo-cures-master-s-wound-name_page.html

“안녕!”

동물 친구들이 보낸 안부 인사

영국 런던 뉴스그룹 (원문 영어)



인기 있는 영국 신문인 『썬(The Sun)』지는 최근 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세계 최초의 말하는 돼지에게 ‘할로(hallo)’ 라고 인사하면 그 즉시 ‘알로(allo)’ 라는 응답을 들을 수 있다.”

1년 6개월 된 이 돼지는 사우스웨일즈의 한 농장에 살고 있다. ‘마우스’ 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암돼지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주인인 마이크 리스 씨에게 “알로” 하고 프랑스 억양으로 인사를 해서 그를 놀라게 했다.

리스 씨는 수개월 전 헛간에서 ‘할로’ 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당시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때 다시 한번 ‘할로’ 라는 소리가 들려 와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헛간 안에는 마우스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마우스가 다시 한 번 인사를 건넸다.

리스 씨는 “원래는 이 돼지를 길러서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지금은 도저히 그럴 수 없게 됐어요.”라고 덧붙였다. ‘할로’ 라는 말을 하게 되면서 운명이 바뀐 마우스는 최근에는 녹음까지 마쳤다. 그녀가 출시한 댄스 음반은 사우스웨일즈의 ‘브리지 FM’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되기도 했다. 영화사에선 이 재능 있는 돼지에게 배역 맡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우스의 “말하는 능력”이 기형적인 성대 때문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마우스만 말할 수 있는 동물은 아니다. 네 살배기 테리어 견인 ‘몰리’ 역시 말을 할 수

있는 동물이다. 몰리의 주인은 『썬』지 기자에게, 동생과 전화를 하는 도중 이 작은 개가 ‘엘로’ 라고 말해서 깜짝 놀랐다고 얘기했다.

현재 몰리는 말하기를 좋아해서 주인이 통화를 할 때마다 중국식 콧소리로 계속해서 ‘엘로’ 라는 인사말을 해서 전화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준다. 몰리의 주인은 현재 몰리에게 실제로 전화를 받고 대답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려고 생각 중이다.

전문가들은 동물이 말하는 것을 신체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하려 하지만 성대 구조가 기형적이든 아니든간에 동물은 실제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억양을 가진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그러나 동물의 신체에서 말을 하는 주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쨌든 우리의 동물 친구들이 인간의 언어를 배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 지구가 황금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 주는 많은 현상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신의 은총을 통해 지구의 모든 창조물들이 고양되고 있다. 마우스의 주인이 마우스가 말하는 것을 듣고 차마 잡아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인류와 동물의 의식 수준이 고양된 후 모든 존재가 서로 더욱더 진보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물 친구의 이 간단한 인사는 모든 존재가 장차 자비롭고 평화로우며 조화로운 새 시대에서 살아가게 될 것임을 알려 주는 징표이다. ❖

1. 원문 기사에 대한 링크 사이트:

<http://www.thesun.co.uk/article/0,,2-2005530518,00.html> (말하는 돼지 마우스에 관한 기사)

<http://www.thesun.co.uk/article/0,,2-2005540051,00.html> (말하는 개 몰리에 관한 기사)

2. 영국 주요 방송사인 GMTV와 마우스의 인터뷰:<http://www.gm.tv/index.cfm?articleid=16576>



화목하게 지내는 순진한 천적 동물들



태국 방콕의 스리라차 호랑이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와 돼지들.

새 천년이 되자 보통 포악한 야수로 여겨지는 동물들이 무한한 사랑을 보여 주는 사례가 점점 더 많이 생기는 듯하다. 태국 스리라차 호랑이 동물원(Sriracha Tiger Zoo)의 한 벵갈 암호랑이가 그 특별한 경우이다. 이 호랑이는 돼지들과 따뜻한 우정을 쌓고 있어 온화한 양육 과정과 진정한 애정이 있으면 개체의 고유한 행동 양식도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태국 방콕에서 동쪽으로 80km 떨어진 촌부리 성(Chonburi Province)에 있는 스리라차 호랑이 동물원에는 200마리 이상의 호랑이와 10여 만 마리의 악어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이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함께 살고 있다. 이 시설은 다른 종의 동물들, 본능적으로 함께 지내기엔 서로 불편한 동물들 사이에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시킴으로써 “불가능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름 높다.

예를 들어, 사이마이(Sai Mai)라는 2년 생 벵갈 암호랑이는 이 동물원에서 태어났는데, 생후 4개월까지 돼지의 젖을 먹고 자랐다. 이렇게 범상치 않은 삶을 시작한 ‘큰 고양이’는 다른 돼지들과 돈독한 우정을 쌓고 있고 심지어 개들 과도 잘 지낸다. 개와 고양이는 보통 천적 관계이고 돼지는 호랑이의 손님이라기보다는 저녁 식사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주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사이마이와 여섯 마리의 새끼 돼지들은 동물원에





서 아주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 우리 인간들은 사이마이의 먹이감이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말이다! 이 특별한 ‘정글의 여왕’과 돼지 친구들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대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준다.

아마도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가 된 모양이다. 우리는 인류와 자연 만물이 서로 인내하고 이해하며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노력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정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물들이 해냈다는 것은 결국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성경 말씀처럼 황금시대가 되면 수없이 많은 새롭고 특이한 관계를 자연계 어디서나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어린 황소가 함께 다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앞에서 장난치고, 어린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를 입거나 다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듯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이사야 11:6-9 RSV).” ❖

보다 많은 사진과 정보를 보시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mysticfamiliar.com/library/l_innocence_and_familiarity.htm



프랑스 소식

‘프랑스에 사는 루마니아인’들을 위한 사랑의 여행

파리 재난 구호 팀 (원문 프랑스어)



2005년 10월, 두 명의 사제가 파리의 마시 팔레소(Massy Palaiseau) 지하철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루마니아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프랑스어도 영어도 하지 못했지만 몸짓으로 담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했다. 이에 10월 16일 일요일 단체명상이 끝난 뒤, 사제들은 그녀에게 따뜻한 옷과 담요를 가져다 주었고 이렇게 해서 ‘프랑스에 사는 루마니아 동포’를 찾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날 그 여성은 정부에서 마련한 이민자 지역으로 동수들을 안내했다. 그곳은 파리 교외의 숲 속인 듯 했지만 말만 그렇지 아름다운 곳은 아니었다. 15분간 걷고 산을 오른 후, 세 사람은 루마니아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 캠프에 다다랐다. 이들은 가난 때문에 조국을 떠나 온 사람들이었다. 어렵게 지내는 그곳 거주자들과 잠시 시간을 보낸 사제들은 파리 센터의 동수들과 함께 그들의 상황에 대해 의논해 보기로 했고 나중에 시후 센터에 미화 3,500달러의 재정적 지원을 신청했다.

재정 지원을 받은 후, 2주 연속으로 일요일마다 캠프를 방문한 동수들은 스승님의 은총으로 담요와 뜨거운 채식 음식, 치즈, 빵, 채소, 의약품 등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루마니아어 외에 이탈리아어밖에 하지 못하는 데다 자신들에 대해 드러내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

에 그들과 소통해 필요한 물품을 알아내는 게 쉽지 않았다. 동수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방법을 시도한 끝에 11월 6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냈다. 물품들을 나누어주기 전, 먼저 그들에게 스승님의 헌신과 노고, 그리고 모든 중생에 대한 사랑과 자비심을 설명하면서 스승님은 아무 보답도 바라지 않고 그들을 돕고 싶어하시는 것뿐이라고 얘기했던 것이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몇몇 루마니아인들이 이 말을 들은 후 눈물을 흘리며 스승님을 예찬하기 시작했고 동수들에게 안으로 들어와 인원수와 가구 수를 세어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던 것이다. 또한 자신들



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알려 주고 자신들의 꿈과 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그후 구호 팀이 기록한 물품 목록을 보여주자 놀랍고 기쁘게도 그들이 스승님의 명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동수들은 또 의료 검진이 필요한 거주민들을 무료 진료소에 데려다 주기로 약속했다.

이 밖에 구호 팀은 이민자 중 가장 어린 아이들이 프랑스어를 배우러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1년 후 루마니아가 유럽 연합에 가입했을 때 이들은 직업을 찾고 그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동수들은 캠프를 떠날 때 열렬한 작별 인사와 박수를 받고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결국엔 언제나 스승님의 사랑이 승리해 희망과 행복을 주며, 모든 마음의 문을 열어 정화시키고,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체험했다.

다음 날 동수들은 약속한 대로 파리 근교의 도매상에 가서 모자와 장갑, 스웨터, 여자 신발, 다양한 개인 위생물품 등 목록에 있는 물품들을 구입한 후 이를 나눠줄 계획을 세웠다. 때 마침 몇몇 스페인 동수들이 매월 파리 센터에서 열리는 정기 선일에 참가하기 위해 왔는데, 그들 모두가 기꺼이 구호 활동에 동참하고 싶어했다.

11월 20일 일요일, 구호 팀이 루마니아 이민자 캠프를 다시 방문해 물품을 나눠주자 거주민들은 예전보다 훨씬 우호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대해주었다. 동수들은 먼저 사랑하는 스승님의 사진들을 나눠주면서 이 선물들은 모두 스승님이 보내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승님은 살아 계신 위대한 성인이라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스승님께 기도하면 언제든지 스승님의 사랑과 도움이 그들과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었다. 이 말을 들은 거주민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흐느껴 울기도 했다.

이어서 12월 4일, 동수들이 루마니아 동포들을 무료 진료소에 데려다 주는 대신 한 동수의 친구인 프랑스인 의사

가 직접 그곳을 방문해 건강 검진을 해주었다. 이와 함께 동수들은 이들이 그 동안 구하지 못했던 물 나르는 수레와 지붕을 덮을 캔버스 천 같은 물건들을 가져다 주었다. 의사는 검진이 필요했던 이들을 진찰하고 선 큰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차고 습한 환경으로 가벼운 병이 생긴 것뿐이라며 약을 지어 주었다. 또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들의 건강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도 얘기했다.

동수들은 또한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루마니아어로 된 스승님의 출판물 몇 권을 전해주면서 스승님의 말씀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의식 수준과 생활 수준을 고양시켜 주시길 스승님께 기도드렸다. 캠프의 부녀자들은 동수들의 친절한 태도에 감동한 나머지 동수들을 열렬히 끌어안았고 한 남자는 스승님의 책을 읽으며 소리 없이 흐느껴 울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석 달밖에 안 되는 체류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루마니아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루마니아인들이 순조롭게 잘 다녀오고 스승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시기를 기원한다. ❖





어울락 소식

스승님은 항상 모든 중생을 돌보신다

홍응오 사형 정리/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원문 어울락어)

2005년 10월 말, 이번 계절에 들어 일곱 번째 태풍이 중부 어울락 지방에 몰아쳐 큰 피해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광범위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 중에서도 빈딘(Binh Dinh) 시의 피해가 가장 컸다. 이 지역 동수들이 이번 재난에 대해 시후 본부에 알리자 본부에서 미화 1만 달러의 구호금을 보내왔으며 어울락과 미국의 동수들도 비슷한 금액을 기부해 홍수 이재민들을 도왔다.

2005년 11월 첫째 주, 발 빠르게 미국 동수들이 어울락에 도착해 지역 동수들의 구호 활동에 합류했다. 그때 다시 여덟 번째 태풍이 상륙해 홍수 피해는 더욱 심각해졌다. 그러나 태풍이 기적적으로 해안 지역을 따라 빠져나가는 바람에 피해는 최소화되었다. 이 놀라운 태풍의 방향 전환에 대해 한 텔레비전 기상 담당관은 “폭풍의 진행 경로가 아주 이상하다.”고 표현했다. 동수들은 그들의 고향을 축복해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해주신 스승님께 조용히 감사드렸다.

11월 5일, 미국에서 온 구호 팀은 퀴논 성의 피해 지역에서 이미 구호 활동을 시작하고 있던 동수들을 만났다. 동수들은 홍수로 친지들을 잃은 가정을 지원하고 노인과 가난하고 병든 이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모든 이들을 도왔다. 동수들은 위로금과 더불어 설탕, 라면, 식용유, 양념, 비누, 샴푸, 우유 그리고 다른 일용품 등을 나눠주었다.

구호 팀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15인승 밴을 빌려 어울락 중부의 피해 도시로 향했다. 광응아이(Quang Ngai)에 도착하자 그곳의 지역 동수들이 오랜 친구를 반기듯 구호 팀을 열렬히 환대해 주었다. 동수들은 구호

계획을 세우고 다음 날 아침 7시부터 구호 활동을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지역 시골 길은 진흙탕인 데다 움푹 파인 곳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동수들은 광응아이부터는 오토바이를 타고 홍수 피해 지역으로 이동했다. 나뭇잎으로 지붕을 엮고 대나무 조각으로 벽을 만드는 허술한 구조로 된 이 지역의 가옥들은 강풍이 살짝 불기만 해도 거미줄처럼 앞뒤로 흔들렸기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그런 집 안에는 어린아이들과 눈이 어두운 할머니들이 꼭 차 있었다. 이재민들은 자신들이 받은 구호금과 구호품이 모두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위해 칭하이 무상사가 보내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선 모두 눈물을 흘리며 꿈만 같아했다.

동수들은 광응아이에서 가까운 광남(Quang Nam)의 이재민들도 도와주었는데, 그곳의 광경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이를테면 한 가정은 아픈 부모가 네 자녀를 키우고 있었는데, 폭풍이 몰아치자 집이 1평도 안 되게 줄어들었다.

광응아이를 떠난 구호 팀은 다낭(Da Nang) 시로 가서 그곳에 근방의 피해 지역을 포괄하는 구호 기지를 세웠다. 그리고 이 지역의 공



무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공하고 피해 지역으로 동수들을 안내해 주며 열성적으로 구호 활동에 협조해 주었다. 구호 팀은 먼저 이 지역의 한 초등학교 지붕을 고칠 수 있도록 성금을 전달했는데, 교장은 감사를 표하며 동수들이 순조롭게 임무를 수행하길 기원해 주었다.

이어서 구호 팀은 부근의 두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지원과 도움을 제공했다. 마을 대표자들은 동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자신들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성금을 공평하게 배분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실제로 동수들을 다음 목적지까지 안내해 준 어린 소년은 동수들이 돈을 주자 받지 않으며 “서로서로 돕고 살아야지요.”라고만 말했다.

다낭에서 일을 끝낸 구호 팀은 즉시 고대 어울락의 수도였던 후에(Hue)로 출발해 밤에 도착했다. 그곳 주민들은 구호 팀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며 작고 예쁜 접시에 음식을 담아 친절하고 품위 있게 동수들을 대접해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이 지역의 정부 대표들은 동수들을 다른 피해 지역으로 안내했다. 동수들은 폭풍으로 많은 재산을 잃은 가정들에게 구호금을 전달했다. 또한 그곳 이재민들로부터 많은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 나서 동수들은 스승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한편, 그들에 대한 스승님의 사랑과 보살핌에 감사드렸다.

이 밖에 구호 팀은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콕트리(Quang Tri)와 콕빈(Quang Binh)에도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다. 콕트리에서 콕빈으로 가던 중 동수들은 한때 어울락을 남과 북으로 나누었던 벤하이 강(Ben Hai River)의 히엔루옹(Hien Luong)교를 건너는 잊지 못할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다.

동수들은 후에의 구호 기지에서 휴식을 취한 후 그 동안의 구호 활동을 검토하면서 콕응아이와 퀴논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을 주기 결정했다. 이에 동수들은 다음 날 아침, 다시 콕응아이로 길을 떠났다.

구호 활동 내내, 구호 팀의 차량을 전담한 운전기사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동수들을 매우 존중해 주었다. 그는 차안에서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언제나 먼저 동수들을 위해 채식 식당을 찾아준 후 식사하러 갔고, 역사적인 곳을 지날 때는 그곳에 대해 설명도 해주었다. 또 여행 내내 침수된 도로나 움푹 패인 구덩이에 대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으며, 동수들이 홍수 피해를 입은 자신의 동포들을 위해 구호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고는 온 마음을 다해 구호 팀을 지원해 주었다. 그래서 동수들은 기나긴 여정 동안 이렇게 헌신적인 조력자를 안내해 주신 스승님께 마음속으로 감사드렸다.

콕응아이에서는 지역 동수들과 함께 구호 활동을 진행했고, 퀴논에서는 그곳 적십자사를 만나 서로 협력해 논하이(Nhon Hai) 섬 주민들에게

시급한 구호품들을 나누어주었다.

퀴논으로 돌아온 구호 팀은 퀴논에서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투이퍽(Tuy Phuoc)에 홍수 피해를 입은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동수들은 서둘러 점심 식사를 마친 후 그 지역으로 출발했다. 그곳의 지역 대표들은 동수들을 재난을 당한 세대로 안내해 주었고 구호 팀은 스승님의 사랑과 함께 성금을 전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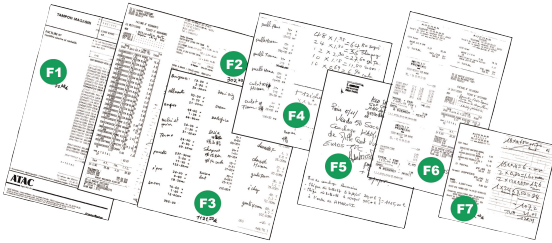
어울락 중부 지역 폭풍 구호 활동을 끝낸 뒤, 미국 동수들은 이재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스승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고 행복해 하던 장면들과 가족들이 고통을 극복하도록 돕던 경험들을 떠올리며 기쁨과 슬픔이 교차된 심정으로 사이공으로 날아갔다. 태풍으로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매우 가난한 곳들이고, 그 지역 제방들은 앞으로 해마다 산에서 쏟아져 내려올 범람을 막기엔 역부족인 상태이다. 그래서 동수들은 최고의 신께 아직도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어울락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릴 뿐이다.

어울락 동수들은 오래 전에 떠나 온 고향에 다시 돌아갈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깊이 감사드리는 한편 스승님께서 행복을 가져다 주시고 모든 영혼들이 그들이 사랑하는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렸다.

후기: 우리 구호 팀에 대한 어울락 정부와 적십자사의 친절한 도움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

프랑스에 거주하는 어려운 형편의 루마니아 이민자들과 어울락 태풍 이재민들에 대한 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구호 활동 지출 내역

국가	활동 사유	구호 내역	금액	영수증
프랑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자선 활동	의류(스웨터, 속옷, 목도리, 양말, 장갑), 모자, 보온병, 샴, 침낭, 약품, 신발, 캔버스 천, 음식, 생활 필수품	3,913.78 유로 (미화 약 4,305.16달러)	F1~F7
어울락	태풍 구호 활동	구호금, 식료품(설탕, 라면, 식용유, 우유, 양념), 개인 위생용품(비누, 샴푸), 기타 생활 필수품	미화 21,000.00달러	없음
총 계			미화 25,305.16 달러	



코스타리카 소식

스승님이 여성 재소자들의 영혼을 밝히시다

젼마 가르시아 사저/ 코스타리카 산호세 (원문 스페인어)

2005년 11월 25일, 코스타리카 동수들은 상 라파엘 아리바 드 디삼파 라도스(San Rafael Arriba de Desamparados)의 엘 부엔 파스토(El Buen Pastor)에 있는 여자 교도소를 방문해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하고 스승님의 신성한 가르침을 전했다. 이 시설은 산으로 둘러 싸여 있으며 신선한 공기가 산에서부터 불어 내려와 주변 환경이 매우 좋은 편이다.

강연회가 있는 날, 설비 장치가 끝나자 호기심에 가득 찬 여성 재소자들이 하나씩 행사장으로 들어왔다. 모두 합쳐 스무 명이 참석한 가운데 먼저 스승님의 일대기를 간략히 소개하는 비디오테이프를 상영해 스승님의 전세계적인 자선 활동을 소개하고 이어서 스승님의 코스타리카 강연 중 하나를 상영했다. 다음으로 동수들은 스승님의 여러 가지 노고와 관음 법문에 대해 좀 더 설명한 후 방편 명상법의 이로움을 얘기하면서 교도소에서도 방편법을 배워 마음의 평화와 고요함, 신에 대한 사랑을 찾을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비디오 상영과 토론이 끝난 후 재소자들은 스승님이 그들의 영혼과 함께하심을 느꼈다고 얘기했다.

그후 모든 참석자들이 방편법을 신청했다. 방편법을 배울 때 교도소의

다른 활동으로 인한 소란함과 인근 정자에서 계속해서 들리는 소음, 대형 스피커를 통해 내보내는 공지 사항 등으로 방해가 많았지만 그들은 스승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30분 내내 집중을 잘 했다.

재소자들은 스승님과 명상법에 대해 알게 되고 내면의 평화와 행복감을 느낄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만족해하며 감사함을 나타냈다. 이어서 동수들과 새로운 방편법 수행자들은 채식 롤빵, 야채 볶음밥, 집에서 만들어 온 빵, 주스, 풍성한 채식 타말레(멕시코 요리 중 하나), 그리고 각 양각색의 과자와 사탕으로 이루어진 맛있는 점심 식사를 즐겼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동수들은 재소자들에게 견본책자를 나누어주고 교도소 도서관에도 스승님의 뉴스 잡지와 견본책자를 기증했다. 재소자들은 행사장을 떠나면서 스승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

미국 워싱턴 소식

신의 자녀들을 먹이는 동안 신에게 더 가까움을 느끼다

시애틀 뉴스그룹 (원문 영어)



추수 감사절이 다가오자 시애틀 센터의 동수들은 매년 해 오던 전통 대로 지역 사회에 보답하는 방식으로 신께 감사드렸다. 2005년 11월 27 일 선이 행사를 마친 후 동수들은 시애틀 시내의 노숙자 친구들에게 줄 따뜻한 음식과 겨울옷을 준비했다.

시애틀 지역은 강우량이 많기로 유명한데 올 겨울도 예외는 아니었다. 행사 당일 아침에 소나기가 내렸지만 동수들이 물자 배분을 시작하기 몇 시간 전에 갑자기 비가 그쳤다. 동수들이 시애틀 시내의 번잡한 거리 모 통이에서 물품을 나눠주자 노숙자들이 즉시 몰려들어 필요한 물품들을 받 으려고 줄을 섰다. 1시간 안에 거의 400명에 이르는 불우한 형제들이 물 질적인 위로를 받았으며 신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며 돌본다는 희망을 다

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수년에 걸쳐 스승님으로부터 충만한 축복을 받은 동수들은 이번 기 회에 어려운 사람들과 그 축복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다. 사형 사저들은 노숙자들에게 봉사하면서 그들의 미소와 감사의 마음을 보면서 스승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노숙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봉사하는 법과 사랑을 확대 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2005년 노숙자 구호 활동에서 동수들은 내면의 사랑이 뻗어나가 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거 의 모든 시애틀 동수들이 음식 준 비나 옷 구입, 물품 배분 등 전 과 정에 참여하거나 한 부분이라도 참여 했으며, 이런 협동의 결과, 모두들 행사 내내 서로에게서 가족과 같은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함 께 봉사하고 최고의 진리를 추구하 며, 모든 스승 중의 스승의 지도 아 래 관음법문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감사해했으며 이는 모든 이들을 더욱 더 가까워지게 했다. ❖





미국 오리건 소식

추수 감사절에 스승님의 사랑을 나누다

오리건 뉴스그룹 (원문영어)



2005년 추수 감사절 기간 동안 오리건 센터 동수들은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될 노숙자 친구들을 위해 세 번의 봉사 활동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특히 유가절에는 불우한 사람들을 더욱더 기억하고 도와주라.”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었다.

노숙자 식당에서 채식 만찬을 대접하다

동수들은 먼저 2005년 11월 17일 포틀랜드 시내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연례 음식 봉사 활동을 개최했다. 올해는 블랑쉐 하우스(Blanchet House)에서 열렸는데, 이곳은 포틀랜드 노숙자들을 위한 주요 식당으로 알려져 있다. 동수들은 총 350여 명 분의 음식을 준비해 제공했다.

또한 노숙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동수들은 지역의 많은 노숙자 쉼터에 전화해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조사했다. 시설의 직원들은 “양말과 수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래서 동수들은 양말 2,000족과 수건 1,000개를 구입하고 편리한 배분을 위해 선물 꾸러미를 음식과 함께 두었다. 양말과 수건, 영혼의 양식이 포함된 거의 300개의 선물이 분배되었다.

한 사제가 파이 20개와 케이크 15개를 구워 와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한 후식을 제공했으며 저녁을 달콤하게 끝낼 수 있었다. 많은 노숙자들과 블랑쉐 하우스의 직원들은 채식 음식이 얼마나 맛있던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애기했다.



추수 감사절의 선물

추수 감사절 저녁에 오리건 센터의 몇몇 동수들은 비옷과 양말, 수건, 양모담요, 그리고 채식 칠면조와 으깬 감자 등으로 구성된 음식이 든 선물을 가지고 포틀랜드 시내를 돌며 불우한 이웃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전했다.

그날 저녁 비가 많이 와서 길거리는 거의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좋지 않은 날씨에도 일부 노숙자들은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일부는 인도에 간단한 텐트를 치고 있었고 일부는 문간 아래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동수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자 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신이 대체 계시긴 하나 하고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군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수들은 많은 노숙자들이 모이는 다리 밑에 가 보았다. 거기에는 이미 다른 자선단체에서 온 자원 봉사자들이 칠면조 요리를 나눠주고 있었다. 그러나 노숙자들은 동수들 뺨을 발견하곤 달려와 비옷, 양말, 담요를 받아갔다. 이 물건들은 춥고 축축한 그날 밤에 아주 필요

한 것들이었다.

동수들은 음식과 선물을 나누어주면서 많은 노숙자들이 정신이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물건을 받을 때는 스승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 역력히 보였다.

기쁨의 순간

오리건 동수들은 2005년 12월 3일 노숙자들이 거처를 찾도록 도와주는 '포틀랜드 노숙자 갱생 보호소'를 방문해 다시 한 번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 행사를 위해 당근 케이크 한 조각과 머핀, 오렌지, 행운의 과자 등 후식을 비롯해 더 많은 선물이 준비되었다. 여기에서 양말과 수건, 스승님의 사진이 든 선물 꾸러미를 정성스레 포장해 명절의 들뜬 분위기와 축복을 더해 주었다. 이 밖에 동수가 운영하는 채식 식당에서 일하는 한 사형이 노숙자들을 위해 풍성한 요리를 준비했는데 맛이 아주 좋아서 두 세 번씩 떠 가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모든 음식은 1시간도 안 돼 동이 났다!

나중에 십터의 종교 담당자가 동수들에게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

해도 되는지 양해를 구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넓은 현관으로 가서 손에 손을 잡고 원을 만들었고 종교 담당자는 감사 기도를 한 후 함께 그날 밤 자리를 함께한 노숙자들을 계속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2005년 12월 노숙자 봉사 활동에 참가한 모든 오리건 동수들은 매우 영광스럽게 느꼈으며, 추수 감사절 동안 스승님과 관음가족을 대표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휴가철을 포함해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할 것이다. ❖

미국 인디애나 소식

폭풍우 끝에 금빛 하늘이 나타나다

오하이오 뉴스그룹 (원문 영어)



2005년 11월 6일 일요일에, 폭 675 마일, 시속 60마일의 30여 년 만에 최악의 토네이도가 켄터키 주와 인디애나 주를 휩쓸었다. 이 폭풍으로 42분 만에 23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으며, 수백 채의 가옥이 파괴되고 많은 가정이 큰 피해를 입었다.

재난 소식을 접한 인디애나, 오하이오, 켄터키 등 중서부 센터의 동수들은 신속하게 대응해서 11월 7일 인디애나 센터에 집합해 구호 계획을 세웠다. 동수들은 생수, 손전등, 건강 식품, 개인용품이 포함된 약 300개의 꾸러미를 준비한 후 11월 8일 새벽 자가용과 임대한 U-Haul 트럭을 타고 폭풍의 피해가 가장 큰 인디애나 주 에반스빌(Evansville)의 뉴버그(Newburgh)로 향했다.

뉴버그에 가까워지자 대규모의 파괴 현장과 막대한 피해가 보였다. 많은 이동 주택들이 찌그러지고 큰 나뭇가지들이 부러져 있었으며 관목 숲은 바람에 날려 온 파편으로 가득 차 있었다. 또한 사람들도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서 동수들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도해 달라고 스승님께 기도했다. 그러자 갑자기 어디선가 한 청년이 나타나 구



호 팀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자청했다.

청년이 데려간 곳은 방위군에 둘러싸여 있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단체가 전에도 적십자사와 함께 구호 활동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선 피해 지역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지만 집들은 지붕과 창문이 없거나 내부 벽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또 일부 집과 차량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다.

지역 주민들은 동수들을 굉장히 반기면서 말했다. “토네이도가 강타한 후 지금까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도우러 온 단체이지요.” 구호 팀을 안내해 준 청년도 우리와 함께 선물 꾸러미 배분을 도와주었다. 전기가 끊어지고 요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재민들은 선물 꾸러미에 포함된 손전등과 식품에 특히 고마워했다.

동수들은 그곳을 떠나면서 이재민들의 얼굴이 처음 도착했을 때보다 훨씬 더 밝아진 것을 보며 스승님의 자비로운 변신의 힘을 본 듯 기쁘게 생각했다. 또한 스승님의 은총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인도되고 그곳을 돕는 첫 번째 단체가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렸다. 동수들은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스승님의 사랑이 이미 그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어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힘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선물을 받은 후 왜 그렇게 기쁜 마음이 드



는지 이해하지 못하긴 했지만, 동수들은 이재민들의 행복이 그 무엇보다 가장 진실된 선물인 신의 무한한 사랑에서 생겨난 것임을 이해했다. ❖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

신이 우리를 통해 봉사하게 하라

산호세 뉴스그룹 (원문 영어)



스승님의 자비로운 본보기와 ‘겨울에 불우한 이웃들을 돌보라’는 애정 어린 충고에 따라 산호세 동수들은 추수 감사절과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세 차례의 활동을 펼쳤다.

노숙자들을 위한 충성한 추수 감사절 채식 잔치

우선 2005년 11월 21일 동수들은 산타클라라 카운티(Santa Clara County)의 ‘도시 사역단 노숙자 쉼터’에서 후원하는 추수 감사절 점심식사에 채식을 제공했다.

올해 추수 감사절 오찬에서 도시 사역단 직원들과 노숙자들은 호화 채식 음식을 처음으로 맛보게 되었다. 그들은 채식 칠면조, 샐러드, 으깬 감자, 볶음밥, 수프, 크림치즈 롤 등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맛보고 진심으로 놀라워했다. 100여 명의 음식이 눈 깜짝할 새에 없



본 도시 사역단은 동수들에게 지속적으로 많은 음식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고, 동수들은 기꺼이 승낙했다.

그리스도 정신을 발휘하다

이어서 2005년 12월 17일 동수들은 한 주임 목사의 도움을 받아 산호세 시청부 근처에 있는 '제일 기독교 교회'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연례 크리스마스 선물 나누기 활동을 개최했다.

동수들은 행사 사흘 전부터 이 지역에 있는 노숙자 쉼터에 시간과 장소를 알리는 전단지를 보냈다. 그래서 당일에는 많은 노숙자 형제자매들이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으며 동수들이 오후 2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엄청나게 긴 줄이 형성돼 있었다. 올해 스승님의 선물에는 어른과 아이들을 위한 보온 재킷, 침낭, 양말, 장갑, 모자, 칫솔, 치약, 채식 샌드위치, 생수, 과자가 들어 있었다. 이 밖에 어린이가 있는 집은 장난감도 받았다.

이번 활동을 하는 동안 동수들은 사랑을 가득 담아 예쁘게 포장한 200여 개의 선물 꾸러미를 신속하게 배분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두 배나 몰려와서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서 동수들은 서둘러 선물을 더 구입해서 모든 이들의 손에 선물을 들려 보냈다.

어졌으며, 맛있는 요리
에 매혹된 노숙자들은
이 음식에 동물 성분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
다는 점에 더욱 놀라워
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풍
부한 명절 음식을 제공
해 준 칭하이 무상사 국
제협회에 깊이 감사했다.
이는 다른 중생을 해치
지 않고도 맛있는 음식
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경
험이라서 오랫동안 잊
지 못할 것이다. 노숙자
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

특별한 여성과
어린이 그룹을 위한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다음으로 2005년 12월 20일에는
사회봉사 그룹인 '아시아 미국인 공
동체 협회(AACI)'와 함께 가정 폭
력을 당한 다양한 인종의 여성들과
그들의 예쁜 자녀들을 위해 즐거운
크리스마스 캐럴 오락 공연을 선사했
다. AACI(www.aaci.org)는 아시아
계 미국인들의 요청에 부응해 보호,
교육, 건강, 인류 봉사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 최
대의 비영리 단체이다.

캐럴 공연에 앞서 동수들은 맛
있는 채식 요리들을 준비해 모두에게
맛보도록 했다. 이번 모임은 일부
여성들에게는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
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갖는 파티
였다. 음식을 먹은 후에 노래가 시
작되었고 중간 무렵부터 어른이나 어
린이나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다.
AACI의 대상자들과 직원, 자원 봉
사자들은 즐겁게 영어, 중국어, 어
울락어로 크리스마스 노래를 불렀
고 활발한 파티 분위기 속에 모두
들 완전히 빠져들었다!

공연 외에 반입문한 어린 사형
이 현란한 중국 요요 재주를 선보였
는데 관중들은 그의 매력적인 미소와
재주에 매혹되었다. 그는 또 다음
공연자들을 위해 피아노 반주를 해
주기도 했다. 이어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돌아왔다. 손님들은 AACI
와 산호세 센터가 함께 준비한 색색
으로 포장된 선물 꾸러미를 받았다.



이 특별한 행사 동안 참가자들은 큰 사랑과 든든한 후원의 힘을 느꼈다. 이는 우리가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이 큰 공동체 속에 서로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AACI 같은 단체에서 헌신적

으로 봉사하는 직원들과 자원자들 덕분에 사회는 점점 더 아름답게 고양되고 있다.

도시 봉사대와 제일 기독교 교회, ACCI와 함께 일하면서 동수들은

스승님의 감로법어를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돕는 것이다.”

또한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동안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기에 올해 추수 감사절과 크리스마스는 모두에게 아주 뜻 깊었다! 동수들은 ‘신이 우리를 통해 봉사하게 하라’는 것을 새해 다짐으로 삼았다. ❖



겨울철에 온정과 영성의 양식을 제공하다

샌프란시스코 뉴스그룹 (원문 영어)



2005년 12월 11일 샌프란시스코 센터 동수들은 지역의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행하고 있는 겨울철 구호물자 배분 활동을 수행했다.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의 겨울은 아주 춥고 비가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동수들은 겨울이 시작되자마자 물품을 나눠주어서 노숙자들이 겨울을 잘 넘길 수 있도록 했다.

동수들은 먼저 침낭 100개와 재킷, 방한모자, 양말, 장갑, 음식을 구입한 후 노숙자들이 영적, 물질적으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물과 음식에 스승님 견본책자도 넣

어 포장했다.

포장을 마친 후 동수들은 평소의 행복한 수행자의 모습 그대로 밤새 몇 시간 동안 차를 몰아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다녔다. 선물을 받은 노숙자들은 한결같이 긍정적이고 고맙게 여겼다. 동수들도 선물을 나눠주면서 매우 뿌듯했으며, 또한 그들의 어려운 처지에 연민과 동정심을 느꼈다.

불우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도록 도와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그들은 이번 겨울에 그 물품들과, 그보다 더 중요한 스승님의 무한한 영적 영양분을 통해 큰 이로운움을 얻게 될 것이다. ❖

일본 소식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새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다

군마 뉴스그룹 (원문 일본어)

1998년 스승님은 전세계 동수들에게 성탄절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때임을 일깨워 주셨다. 군마 센터 동수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해마다 군마와 이웃 현의 노숙자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따뜻한 내의와 긴 코트, 바지, 양말, 스카프, 장갑, 모자, 감기 약, 손 난로, 가피물, 과일, 그리고 스승님의 감로 법어가 든 행운의 과자를 선물했다. 그 중에서 노숙자들에게 가장 환영받은 품목은 안감이 플란넬 천으로 되어 있고 보통 모자가 달려 있는 침낭처럼 따뜻한 긴 코트였다.

노숙자들은 한 곳에 고정적으로 머무르지 않는다. 그래서 동수들이 그 전날 그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에 대해 정보를 입수하긴 했어도 당일 그들이 있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다행히 다른 자선 활동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스승님께서 우리들을 가장 필요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예를 들면 동수들은 군마의 톤 다리 밑에 있는 강가에서 뽕소니차 사고로 두 다리가 골절된 장애인 노숙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의 다리는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그냥 저절로 회복되도록 방치된 상태였다. 그의 상황을 본 동수들은 그에게 목발과 많은 손 난로를 사 주었는데 그는 잊지 못할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어 주었다. 다른 노숙자는 난생 처음으로 받아보는 동수들의 친절과 선물에 가슴이 북받쳐 올라 눈물을 흘렸다. 한 노

숙자는 최근 교도소에서 석방되어 먹을 것도 없고 거처할 곳이 없어 현청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고 할머니는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한밤중에 길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은총으로 이런 사람들을 한 명씩 발견해 그들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전해 줄 수 있었다. 허름한 차림으로 공원에서 낙엽을 쓸어 손수레에 담고 있던 두 명의 자원 봉사자들도 선물을 받고 기뻐하며 외쳤다. “좋은 일을 하자마자 신께서 선물을 주시는군요! 내일부터는 낙엽을 쓰는 게 더욱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러고선 동수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한 노숙자 친구가 자신의 어려운 처지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선물을 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주던 모습이었다. 군마 동수들은 이 성인(聖人)과도 같은 모습에 큰 감동을 받고 그에게





다시 선물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후 사형사자들은 예정된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그러나 길을 안내하는 동수가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우연찮게 한 노숙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동수들이 지난 8년간 봤던 노숙자들 중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었다. 선물을 받으려고 뺨은 그의 벌겋게 부풀어 오른 손을 보고 동수들은 깜짝 놀라 물었다. “왜 이렇죠? 아프신가요?”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요.” 그가 대답했다. 그의 얼굴과 다리도 붉게 부어 있었고 신발은 너무 작고 딱 조여서 살짝 스치기만 해도 아파 보였다. 동수들이 잔걸음으로 근처 약국에 가서 그의 상태를 설명했더니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 보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동수들은 그에게 충분한 진찰료와 함께 약사의 조언을 전해 주었다. 이미 긴 코트를 걸치고 후드를 덮어쓰고 있던 그는 동수가 내어준 장갑에 부어오른 손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으면서 천사같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 좋군요!” 잠시 후 동수들이 뒤돌아봤을 때는 이미 모습을 감춘 상태였다. 동수들은 그의 상태가 걱정되어 즉시 지역의 노숙자들을 돌보는 단체에 전화해서 그 노숙자를 계속 도와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를 처음에 만났던 곳은 동수들이 전에는 가 본 적이 없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스승님께서 그 노숙자에게 우리를 인도한 것임에 틀림없었다. 이렇게 스승님은 지구 곳곳에 있는 모든 신의 자녀들에게 분별 없는 사랑을 보내고 계신다. 그 거대한 자비심은 모든 존재들을 감동시킨다.

2005년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군마의 거리는 조명등이 반짝이고 즐

거운 분위기가 넘쳐흘렀지만 노숙자들에게는 그저 춥고 외로운 한 때였다. 군마 동수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어려운 이들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나누는 도구로써 봉사하도록 인도해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최근 스승님께서 지구의 의식을 고양시킨 결과 보다 많은 세계인들이 불우한 사람들을 돕게 되었다. 올해 크리스마스를 맞아 신성한 빛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구석구석 밝히는 것을 보며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스승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대한민국 소식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채식 뷔페

서울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2005년 12월 21일,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서울 센터와 SM 채식뷔페는 하상 장애인 복지관에서 '지역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듀 2005 송년 잔치'를 개최해 인근의 장애인들에게 사랑이 담긴 무료 채식 뷔페를 제공했다. 하상 장애인 복지관은 시각 장애인, 지체 장애인, 발달 장애인의 복지와 재활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 복지 시설이다.

하상 복지관은 평소에도 매일 점심 식사를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제공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인 떡볶이가 송년파티에서 특별히 준비되다.



/ 주관 : 하상장애인복지관 / 일시 : 12월 21일(수) 오전 11



하고 있는데, 복지관 측은 올해 특별한 송년회를 어떻게 치를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우리의 연락을 받고선 시기 적절한 도움에 기쁨과 감사를 나타냈다. 행사 당일 200명이 넘는 복지관 가족들은 수십 가지가 넘는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채식 식사를 대접받고 매우 즐거워했다.

이선미 복지관 기획팀장은 동수들의 노고에 감사해하며 말했다. “맛있고 풍성한 음식을 마련해 주시고 특히 오늘 가장 인기가 좋았던 떡볶이도 준비해 주신 데다, 커피와 차까지 배려해 주셨네요. 여러분의 정성과 따뜻한 배려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뷔페 요리는 보통 찬 음식이 많은데 오늘 음식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셔서 장애인들이 드시고 소화시키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다들 너무 많이 드셨습니다.”

한 장애인은 마침 그날이 자기 생일인데 이렇게 풍성한 잔치가 열려서 성대한 생일 파티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무척이나 기뻐했다. 또 다른 장애인은 “전날 TV 뉴스에서 올 연말에는 술 마시고 놀기만 하던 송년회를 자원봉사로 대신하는 단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내년에는 매일 이렇게 웃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했다.

복지관의 식당 운영 담당자인 김재성 씨는 “어떤 장애인들은 이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점심이 하루 중 유일한 끼니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면 많이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워낙 음식이 맛있어서



하상 재활원 원장인 박정근씨가 동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음식에 대한 칭찬이 대단했으며 다들 평소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군요.” 라고 말했다.

장애인을 위해 20년 동안 봉사해 온 박정근 하상 복지관장은 동수들에게 깊이 감사하면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하상 재활 복지관에서 열린 2005년 송년회에서 행복과 웃음이 넘쳐난 것은 맛있는 채식 요리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동수들을 통해 일하

신 스승님의 고양된 힘과 사랑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동수들 또한 이들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밝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포모사 소식

노숙자들에게 목욕 차량을 제공해 사랑의 바다에 잠기게 하다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2005년 9월 2일, ‘신성한 사랑의 빛이 노숙자 친구들을 비추다’라는 행사를 전개하면서 타이베이 현에 소재한 노숙자 쉼터 ‘돌봄의 집’을 방문한 타이베이 센터 동수들은 이 시설에 목욕 차량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노숙자 쉼터에 있던 기존의 목욕 차량은 타이베이 현 내의 마을을 순회하면서 공원이나 사찰처럼 노숙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에 서서 노숙자들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곤 했었지만 이제는 낡고 쓸 수 없게 된 상태였다. 그러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겨울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이를 몹시 우려한 타이베이 현 자원 봉사 협회 황메이잉 이사장은 신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했다.

자비로운 스승님은 노숙자 쉼터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아신 후 즉시 새 트럭을 기부하심으로써 이 시설을 축복하셨다. 이어서 동수들은 타이베이 자원 봉사 협회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눈 후 특별히 노숙자들의 요구에 꼭 맞는 목

욕 차량을 제작하도록 주문하곤 그들에게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도움과 더불어 사랑과 온정이 전해지길 희망했다. 이 목욕 차량은 ‘사랑의 바다’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소망을 뜻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를 사용하는 노숙자 친구들이 사랑의 바다에 잠긴 듯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과거의 묵은 때를 씻어내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길 바란다는 뜻이다. 동수들은 목욕 차량 외에도 노숙자들에게 새 옷과 신발도 제공했다.

11월 24일에는 타이베이 현 사회 복지국과 타이베이 현 자원 봉사 협회,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대표





타이베이 현 자원 봉사 협회 황메이잉
이사가장 스승님의 자비로운 기증에 감
사드립니다.

들이 타이베이 현 반치아오에 있는 현청에서 조출하고도 엄숙한 기증식을 가졌다. 행사 중 타이베이 현 사회복지국의 양수두안 국장은 다음과 같이 치사했다. “예전 목욕 트럭은 6년 동안 노숙자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차량은 표면적으로는 목욕 편의 시설에 지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회와 자원 봉사들이 불우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상호 작용을 하는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노숙자 친구들에게 사회의 사랑과 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이 폭폭 나는 뜨거운 물을 제공하는 ‘사랑의 바다’ 목욕 차량은 타이베이 현의 불우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관심과 보살핌을 전하며 칭하이 무상사와 그 제자들의 사랑을 실현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타이베이 현 자원봉사 협회 황 이사장은 이 차량이 추운 겨울에 소외된 사람들이 따뜻한 사랑의 바다에 잠겨 목욕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며 스승님의 자비로운 기증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오늘 우리 노숙자 친구들은 이발과 목욕을 마치고 새 옷과 신발을 착용한 후 몸과 마음으로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이해, 관심으로 그들의 미래는 더욱 더 밝아지고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사회복지국의 양 국장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측에 감사패를 전달한 후 동수 한 명과 함께 ‘사랑의 바다’ 목욕 차량에 시승해 함께 온수 꼭지를 틀며 정식으로 개시했다. 이후 많은 노숙자 친구들이 줄을 지어 목욕 차량을 사용했다. 그들 중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 중년의 여자 노숙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이발과 목욕을 하고 새 옷까지 받은 한 중년 남자는 “이젠 정말 날아갈 듯 편안하고 시원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들의 행복 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사랑의 바다 호’ 기증 행사에 참석했던 동수들은 스승님이 타이베이 현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축복을 전하고 그들에게 밝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촛불을 밝혀 주시고 또한 사랑의 바다에서 그들의 지난 업장을 씻기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스승님은 우주의 막중한 일들을 처리하시느라 바쁜 와중에도 계속해서 도처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요구를 돌보시고 계신다. 스승님의 무아의 자비로움과 끝없는 사랑에 제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다. ❖



‘사랑의 바다’ 호에 제일 먼저 들어가 목욕을 한 노숙자 친구-이발을 하고 뜨거운 물로 목욕한 후 새 옷을 갈아입어 생기 넘치고 유쾌해 보인다.



내 인생을 밝혀 주신 스승님

2004년, 플로리다 센터 동수들은 플로리다 주립 교도소 몇 군데에 스승님의 경서를 전달했었다. 그때부터 열두 명의 재소자들이 센터로 편지를 보내왔다. 다음은 그 중에서 방법을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한 재소자가 보낸 편지이다.

예비 입문자 제리 리스/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친애하는 사형사자들에게

제 인생에 가장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고귀한 영성을 지닌 두 분의 천사들이 저를 찾아와 저에게 방편법을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바다처럼 한없는 스승님의 사랑 속에 제가 이미 관음 가족에 공식적으로 '입양' 되었음을 알려 주셨거든요! 제가 천국에 있는 건 아닌지요?

명상을 시작할 때 사제들이 스승님의 명호를 읊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도 아름다워서 저는 그 즉시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면에 있는 스승의 힘이 작용하기 시작했고 스승님이 모든 것을 떠맡아 주셨습니다. 제가 본 것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많은 빛과 사랑, 평화, 축복이 오색찬란하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스승님의 귀한 딸들의 눈과 가슴을 통해 스승님이 그곳에서 저를 보며 축복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의 모든 것이 정말 빠르게 변했습니다. 마치 우주선을 탄 것 같았지요.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란 말로 지금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을까 싶습니다!

행복한 기대와 기도하는 열망으로 다음 번 만남을 기다리겠습니다.

사제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승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나무 청하이 무상사!

2005년 10월 11일 방편법 수행자 겸 예비 입문자
제리 리스 드림

전세계 연락처

■ 아프리카 ■

★ 앙골라: 센터/ 244-923-338082/ luandacentre@yahoo.com
★ 베닌: 센터/ 229-21-383982/ smbenin@yahoo.fr
★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센터/ 226-50-341704/ smburkinafaso@yahoo.fr
★ 카메룬: 두알라 센터/ 237-3-437232/ smcameroon@hotmail.com
★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센터/ 243-810583010/ blessedcongo@yahoo.fr
★ 가나: 센터/ 233-27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726944744/ smoothgoing@gmail.com
★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Mr. Eric Razahidah/ 261-33-1115197/ hidahraza@yahoo.fr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566286/ slfu_liang91@hotmail.com
포트루이스/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lius@intnet.mu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82-570-4437/ ghvosloo@mweb.co.za
요하네스버그/ Ms. Khena Refiloe Truelove/ 27-83-5014853/ emzinikababa@yahoo.com
★ 토고:
팔리메/ 센터/ 228-4-410-948
로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로메/ Mr. David Chine/ 228-2-215-551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 아메리카 ■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regresandoacasa25@yahoo.com.ar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301758/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브라질:
벨렐/ Mr. Wei Cheng Wu/ 55-91-32234424, 55-91-32746611/ belemcenter@yahoo.com.br
고이아니아/ Mr. & Mrs. Erwin Madrid/ 55-62-3941-4510/ erwinserrano@terra.com.br
라시페/ 센터/ recifecenter@click21.com.br
라시페/ Ms. Maria Vasconcelos de oliveira/ 55-81-3326-9048/ mariaoliveira_cultural@click21.com.br
라시페/ Ms. Monica Tereza Nogueira/ 55-81-8742-3431, 55-81-3304-0452
상파울루/ 센터/ 55-11-5904-3083, 55-11-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캐나다:
에드먼턴/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에드먼턴/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anh2sd@hotmail.com
런던/ 센터/ 1-519-833-7162/ uniselt@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sympatico.ca
몬트리올/ Ms. Euchariste Pierre/ 1-514-481-9816/ p_euchariste1@sympatico.ca
몬트리올/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thehungnguyen@sympatico.ca
오타와/ Mr. Jianbo Wu/ 1-613-829-5668/ jianbowu2002@yahoo.ca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토론토/ Ms. Diep Hoa/ 1-905-828-2279/ hoadiep0723@yahoo.com
토론토/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토론토/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2277@yahoo.ca
밴쿠버/ Ms. Shei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밴쿠버/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nguyen2002@yahoo.com
★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Mrs. Millaray Lizana Lizana/ 56-2-4544278/ millaraynoemi@yahoo.com
★ 콜롬비아: 보고타 센터/ 57-1-2712861/ luzdelsonido@yahoo.com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산호세/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401@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멕시코 시티/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godsdirectlove@yahoo.com.mx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xcenter@gmail.com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al Suffo/ 52-8-18104-1604/ monterreycenter@yahoo.com.mx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pastora7iglesia@yahoo.com
★ 파나마:
파나마/ 센터/ 507-236-7495
파나마/ Ms. Maritza E. R. de Leone/ 507-260-5021/ mrlone2@yahoo.com
★ 파라과이:
아순시온/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2-523684/ ec_py2002@yahoo.com.ar
★ 페루:
아레키파/ Mr. Julio Cardenas Pelizzari/ 51-54-453828/ qyarequipa@yahoo.com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 centro@yahoo.com
리마/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edyter@viabcp.com
리마/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히요/ Mr. & Mrs. Raul Seugra Prado/ 51-44-221688/ rsp.trujillo@hotmail.com

★ 미국:	* 미시간: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mading02000@yahoo.com
* 에리조나: 센터/ 1-602-264-3480	* 미네소타: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mn@yahoo.com
* 에리조나: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ngoaz@hotmail.com	* 미주리: 블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 이칸사스: Mr. Robert Jeffreys/ 1-479-253-8287/ bobedj@cox.net	*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nawarskas@comcast.net
로스앤젤레스/ 센터/ 1-951-674-7814	* 뉴욕:
로스앤젤레스/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lin54@hotmail.com	뉴욕/ Mr. & Mrs. Zhilua Dong/ 1-718-567-0064/ dong@physics.columbia.edu
로스앤젤레스/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SanGabriel99@hotmail.com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585-256-3961/ dcouch@rochester.rr.com
로스앤젤레스/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 노스캐롤라이나: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northcarolinacenter@hotmail.com
세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ter.ca@gmail.com	* 오크하이오: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o@juno.com	해밀턴/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ohlocenter@yahoo.com
샌디에이고/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해밀턴/ Mr. Gilbert Rivera/ 1-513-226-3686/ wisdmeye@aol.com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 오클라호마: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yahoo.com
샌프란시스코/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 오리건:
샌프란시스코/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fcenter@hotmail.com	포틀랜드/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egon_center90@yahoo.com
산호세/ Ms. Sophie Lapaire/ 1-650-464-8066/ Margoriflco@yahoo.com	포틀랜드/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산호세/ Mr. Loc Petrus/ 1-510-813-2300/ petrusl2k4@gmail.com	* 펜실베이니아: Mr. & Mrs. Diep Tam Nguyen/ 1-610-529-3114/ DiepAshleyPa@aol.com
* 콜로라도: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k@ureach.com	* 펜실베이니아: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 플로리다:	* 텍사스:
케이프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239-458-2639/ CapeCoralCenter@Gmail.com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ldawu@yahoo.com
케이프코랄/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moonwater33597@yahoo.com	오스틴/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ongdean@yahoo.com
올랜도/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smch_orlando@yahoo.com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 조지아: Mr. James Collins/ 1-770-294-1189/ georgiacenter@hotmail.com	달라스/ Mr. Tim Mecha/ 1-972-395-0225/ tmecha@comcast.net
* 조지아: Mr. Roddell Pleassants/ 1-678-429-7958	달라스/ Mr. Weidong Duan/ 1-972-517-5807/ water96@yahoo.com
* 조지아: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달라스/ Mr. Jimmy Nguyen/ 1-972-206-2042/ JimmyHN Nguyen@yahoo.com
* 하와이: 센터/ 1-808-735-9180/ hawaiictr@hotmail.com	휴스턴/ 센터/ 1-281-955-5782
* 하와이: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DorothySakata@aol.com	휴스턴/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damson@houston.rr.com
* 일리노이: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tran@yahoo.com	휴스턴/ Mr. & Mrs. Charles Le Nguyen/ 1-713-922-1492/ cuc-le@houston.rr.com
* 인디애나: Ms. Josephing Poelinitz/ 1-317-842-8119/ joslepoe@sbcglobal.net	휴스턴/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yuan@houston.rr.com
* 캔터키: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2049/ lethong@hotmail.com
프랭크퍼트 센터/ kycenter2000@yahoo.com	* 버지니아: 센터/ 1-703-941-0067
프랭크퍼트/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ujl.Nguyen@ky.gov	버지니아버지/ 센터/ 1-757-461-5531/ liem_le23502@yahoo.com
* 캔터키: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ujl.Nguyen@ky.gov	버지니아버지/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thly@hotmail.com
* 루이지애나: Mr. John L. Fontenot/ 1-504-914-3236/ jlfontenot@hotmail.com	* 워싱턴:
* 메릴랜드: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arylandcenter@yahoo.com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 매사추세츠:	시애틀/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보스턴/ 센터/ 1-978-528-6113/ bostonctr17@yahoo.com	*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o@yahoo.com
보스턴/ Ms. Gan Mai-Ky/ 1-508-791-7316	★ 푸에르토리코:
보스턴/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카위/ Mrs. Disnald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disnald@caribe.net

■아시아■	대구/ 김익현/ 053-633-3346
★ 포모사:	대구/ 한선희/ 053-746-5338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 tpe.light@msa.hinet.net	대구/ 차재현/ 053-856-3849
타이베이/ Mr. & Mrs. Loh, Shih-Hung/ 886-2-27062628/ shloh@ndmctsg.edu.tw	대전/ 센터/ 042-625-4801/ smdaejeon@yahoo.co.kr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대전/ 도봉희/ 042-471-0763/ dbhs44463@yahoo.co.kr
미아오리/ Mr. Chu, Chen Pei/ 886-37-724726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가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33-1441	전주/ 신현창/ 063-254-5824
★ 홍콩:	광주/ 센터/ 062-525-7607
홍콩/ 센터/ 852-27495534	광주/ 조명대/ 061-394-6552/ smgwangju@naver.com
홍콩/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sm_hongkong@yahoo.com	인천/ 센터/ 032-867-5351/ lightundinchon@yahoo.co.kr
★ 인도: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2655-6741/ shiva@cal.vsnl.net.in	인천/ 이재문/ 032-812-1250
★ 인도네시아:	안동/ 김삼태/ 054-821-3043/ smandong@hanmail.net
발리/ 센터/ 62-361-231-040/ smch_bal@yahoo.com	청옥/ 센터/ 054-673-1399
발리/ Mr. Agus Wibawa/ 62-81-855-8001/ wibawa001@yahoo.com	★ 라오스: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smch-jkt@dnnet.net.id	비엔티안/ Mr. Somboon Phetphommasouk/ 856-21-415-262/ sobophet@yahoo.com
자카르타/ Mr. Tai Eng Chew/ 62-21-6319061/ cte@envirotec.co.id	★ 마카오:
자카르타/ Ms. Lie Ik Chin / 62-21-6510715/ herlina@ucll.com	마카오/ 센터/ 853-532231/ mcdilove@yahoo.com.hk
자카르타/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마카오/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자카르타/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ketut@sinarmas.co.id	★ 말레이시아: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i_wartono@telkom.net	알로르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말랑/ Mr. Henry Soekianto / 62-341-325-832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supreme2@tm.net.my
메단/ Mrs. Merlinda Sjaifuddin/ 62-61-4514656/ smch_medan@hotmail.com	팔라렝푸르/ 센터/ 60-3-21453904/ kismch@yahoo.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ahimsasb@indosat.net.id	팔라렝푸르/ Mr. Phua Kai Liang/ 60-12-307 3002/ klnet23@yahoo.com
수라바야/ Mr. Harry Limanto Liem/ 62-31-594-5868/harry_l@sbj.dnet.net.id	페낭/ 센터/ 604-2285853/ pgsmch@pd.jaring.my
육아카르타/ Mr. Augustinus Madyana Putra / 62-274-411-701/ tadianingtyas@lycos.com	페낭/ Mr. & Mrs. Lim Wah Soon/ 604-6437017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yadari@freeuk.com	★ 몽골:
★ 일본: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10908/ baasandamba@yahoo.com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divinalv@mtb.biglobe.ne.jp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도쿄/ Ms. Yukiko Sugihara/ 81-90-6104-5770/ lotus@sky.plala.or.jp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ssaikss@mptmail.net.mm
도쿄/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y-plus@f6.dion.ne.jp	★ 네팔:
★ 대한민국:	카트만두/ 센터/ 977-1-4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출판사/ 042-543-9250/ chinghaikpt@yahoo.co.kr	카트만두/ Mr. Ajay Shrestha/ 977-1-4473-558/ ajaystha@hotmail.com
영동/ 센터/ 054-532-5821/ houmr21@yahoo.co.kr	포카라/ 센터/ 977-61-531643
서울/ 센터/ 02-577-2158/ goldenseoul@yahoo.co.kr	포카라/ Mr. Bishnu Neupane/ 977-61-31643/ neupanebishnu@hotmail.com
서울/ 유태인/ 02-795-3927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917-474-9845/ manilach@hotmail.com
부산/ 센터/ 051-334-9204~5/ chinghaibusan@hanmail.net	★ 싱가포르:
부산/ 송호준/ 051-903-4552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chinghai@singnet.com.sg
부산/ 황상원/ 051-805-7283	싱가포르/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 스리랑카:

<p>콜롬보/ Mr. Lawrance Fernando/ 94-1-412115/ samantha_nbl@zeynet.com</p> <p>★ 태국:</p> <p>방콕/ 센터/ 662-674-2690/ bkkc66@gmail.com</p> <p>방콕/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66-2-5914571/ edasnlad@stou.ac.th</p> <p>치앙마이/ Ms. Siriwan Supatrchamnian/ 66-50-332136/ sirwanliy@gmail.com</p> <p>콘캔/ 센터/ 66-43-378112</p> <p>송크라/ 센터/ 66-74-323694</p> <p>■ 유럽 ■</p> <p>★ 오스트리아:</p> <p>비엔나/ 센터/ 43-699-12272892/ Chinghai@gmx.at</p> <p>비엔나/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p> <p>★ 벨기에:</p> <p>브뤼셀/ Ms. Ann Goorts/ 32-472-670272/ qybelgium@yahoo.com</p> <p>브뤼셀/ Mr. Eilen De Maesschalk/ 32-486-242248</p> <p>★ 불가리아:</p> <p>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8575358/ wwwruslan@yahoo.com</p> <p>플로르디프/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yahoo.com</p> <p>★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zeljko@mindless.com</p> <p>★ 체코:</p> <p>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czech-center@spojenisbohem.cz</p> <p>프라하/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p> <p>★ 덴마크: Mr. Thanh Nguyen/ 45-66-190459/ my@webspeed.dk</p> <p>★ 핀란드:</p> <p>헬싱키/ Mr.Jussi Pohjolainen/358-40-548-3533/ jussi_pohjolainen@yahoo.com</p> <p>헬싱키/ Mr.Hannu Hovilainen/ 358-40-734-3516/ helsinkicenter@yahoo.com</p> <p>★ 프랑스:</p> <p>알사스 센터/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arclai@infonie.fr</p> <p>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p> <p>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p> <p>파리/ 센터/ 33-1-4300-6282</p> <p>파리/ Ms. Lancelot Isabelle/33-1-7069-3210/ ilancelot@celestiafamily.net</p> <p>★ 독일:</p> <p>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Grigorii.Guinzbourg@gmx.de</p> <p>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203-4846374/ ngoc-thao.nguyen@gmx.de,dusseldorfceter@hotmail.com</p> <p>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p> <p>뮌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l@aol.com</p> <p>뮌헨/ Ms. Kang Cheng/ 49-89-3616347/ lovesource@yahoo.de</p> <p>★ 그리스:</p> <p>아테네/ Ms.Vicky Chrisikou/ 30-210-8022009, 30-6944-470094/ luckychrisikou@yahoo.gr</p>	<p>★ 네덜란드:</p> <p>암스테르담/ Mr. kamlung cheng/ 31-647838638/kamlung27@hotmail.com</p> <p>★ 헝가리:</p> <p>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freemail.hu</p> <p>부다페스트/ Mr. Lehel Csaba/ 36-96-2400-259/ clehel@freemail.hu</p> <p>부다페스트/ Gabor Soha/ 36-20-221-5040/ gabor.soha@gmail.com</p> <p>★ 이탈리아:</p> <p>페스카라/ Bettina ADANK/ 39-085-454-9184/ bettina.adank@fastwebnet.it</p> <p>★ 아일랜드:</p> <p>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dublinquanyin@yahoo.co.uk</p> <p>★ 노르웨이:</p> <p>오슬로/ Ms. Marte Hagen/47-64978762, 47-92829803/ marte.hagen@gmail.com</p> <p>★ 폴란드:</p> <p>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k/ 48-91-4874953/ gingal@wp.pl</p> <p>바르샤바/ Ms. Elzbieta Ukleja/ 48-22-8367814/ elzbieta_q1@yahoo.com</p> <p>★ 포르투갈:</p> <p>레이리아/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lcoa_center@hotmail.com</p> <p>★ 루마니아: 부차레스트/ 센터/ bucharestq@yahoo.com</p> <p>★ 러시아:</p> <p>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boulgakov@tri-el.ru</p> <p>★ 슬로베니아:</p> <p>루블랴나/ 센터/ 386-1-5182542/ quanyin@siol.net</p> <p>루블랴나/ Mr. Janez Pavlovic/ 386-41-320-268/ janez.pavlovic@siol.net</p> <p>마리보/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rast05alfonz@yahoo.com</p> <p>★ 스페인:</p> <p>마드리드/ Ms. Lidia Kong/34-91-547-0366</p> <p>마드리드/ Mr. Claudio Octavio Silva Zuniga/ 34-667090831/ claudiosilvachile@yahoo.es</p> <p>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p> <p>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p> <p>발렌시아/ Mr. Yu Xi-Qi/ 34-96-3347061/ valenciachinghai@yahoo.es</p> <p>★ 스웨덴:</p> <p>연갈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Angelholmswe@yahoo.com</p> <p>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smchsweden@yahoo.se</p> <p>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p> <p>★ 스위스:</p> <p>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lo.org</p> <p>제네바/ Ms. Klein Ursula/ 41-22-369-1550/ uklein@tiscali.ch</p> <p>★ 영국 연방:</p> <p>* 잉글랜드:</p>
---	---

인스위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shahidocean@hotmail.com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런던/ 센터/ 44-2088-419866/ pnl@matters19.freesevice.co.uk	멜버른/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robbery@aol.com
런던/ Mr. Nicholas Gardiner/ 44-2089-773647	멜버른/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honglovrme@yahoo.com
런던/ Mrs. C Y Man/ 44-1895-254521/ chuk_yee_man@hotmail.com	멜버른/ Mr. Alan Khor/ 61-3-9857-4239/ ckhor@netspace.net.au
스토크온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866489/ j.weller4@ntlworld.com	퍼스/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net.net.au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퍼스/ Mr. Ly Van Tri/ 61-8-9242-2848
* 스코틀랜드:	시드니/ Mr. Eino Laidsaar/ 61-2-655-04455/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에드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시드니/ Mr. Ly An Thanh/ 61-2-9823-8223/ anbinh_sydney@yahoo.com.au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 호주: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에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ide@hotmail.com	오클랜드/ Mr. Peter Morrin/ 64-9-579-2452/ ptr@ihug.co.nz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_en@yahoo.com.au	오클랜드/ Mr. Chang Jen-Hor/ 64-9-2749298/ changjenhor@yahoo.com
브리즈번/ Mr. Gerry Blisshop/ 61-7-3901-6235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yahoo.com.au
브리즈번/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lieng_briscentre@yahoo.com.au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64-211399934/ hamnzcont@yahoo.co.nz
브리즈번/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dlch136@hotmail.com	넬슨/ Ms. Shari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캔버라/ Mr. Hoang Khanh / 61-2-6259-1993/ smcanberra@hotmail.com	* * * * *

* 전 세계 연락처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연락처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 www.Godsdirectcontact.org.tw/eng/cp/index.htm](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cp/index.htm)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비디오테이프

이메일: art&spirituality@Godsdirectcontact.org
팩스: 1-413-751-0848 (미국)

SM 경서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9-883-778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LA 센터 경서팀

이메일: la_bookstore@yahoo.com
팩스: 1-951-738-9992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888@hotmail.com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http://www.sm-cj.com>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포모사 타이베이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 2-8787-3935
팩스: (886) 2-8787-0873

대한민국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전화: 042-543-9250
팩스: 042-543-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nmri21@yahoo.co.kr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천의, SM 보석, 해피요기, 만세등,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두 친구의 기도

“우리는 보다 넓은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만 합니다.
개인, 가족, 또는 5대 조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세계를 위해 수행해야 합니다.”
~ 칭하이 무상사 ~

작자 미상 (원문 영어)

어떤 배가 항해하던 중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 난파되어 두 남자만이 겨우 헤엄쳐 황량한 작은 섬에 닿게 되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두 남자는 신께 기도하는 수밖에 방도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의 기도가 더 강력한지 보기 위해 섬을 둘로 나눠 각자 다른 쪽에 머물기로 했다.

그들이 처음으로 기도한 것은 식량이었다.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남자는 자기 쪽 땅에 과일이 잔뜩 열린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과일을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남자의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남자는 외로워서 아내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로 했다. 그 다음 날, 또 다른 배가 난파되었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여자가 첫 번째 남자가 있는 쪽으로 헤엄쳐 왔다. 하지만 반대편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곧 이어 첫 번째 남자는 집과 옷, 더 많은 식량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다음날 이 모든 것들이 마술처럼 나타났다. 하지만 두 번째 남자에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마침내, 첫 번째 남자는 아내와 함께 섬을 떠날 수 있도록 배 한 척을 보내 달라고 기도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 보니 그가 있는 땅에 배 한 척이 정박되어 있었다.

아내와 함께 배에 오른 첫 번째 남자는 두 번째 남자를 섬에 그냥 두고 가기로 했다. 두 번째 남자의 기도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남자가 신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여겼던 것이다.

배가 막 떠나려는 순간, 첫 번째 남자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왜 네 친구를 섬에 두고 떠나려 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남자가 대답했다. “이 축복은 오직 저만의 것입니다. 제가 기도해서 생긴 것이니까요. 그의 기도는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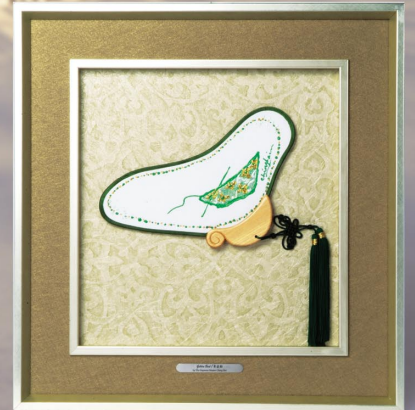
“넌 잘못 알고 있다!” 그 목소리가 그를 꾸짖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기도만 했고 나는 그 기도를 들어 주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는 나의 어떤 축복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말씀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남자가 그 목소리에 게 물었다. “그가 무슨 기도를 했기에 제가 그에게 빚을 졌다는 겁니까?”

“그는 너의 모든 기도가 응답 받기를 기도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우리가 연을 축복을 우리 자신이 기도한 결과가 아니다. 그건 다른 이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 덕택이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

오묘한 세계가 채색 부채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다



천상의 발우

토란에 내리는 비

석양

황금 배

이 부채는 석가모니불의 발우에
다채로운 빛깔의 채소가 가득 담겨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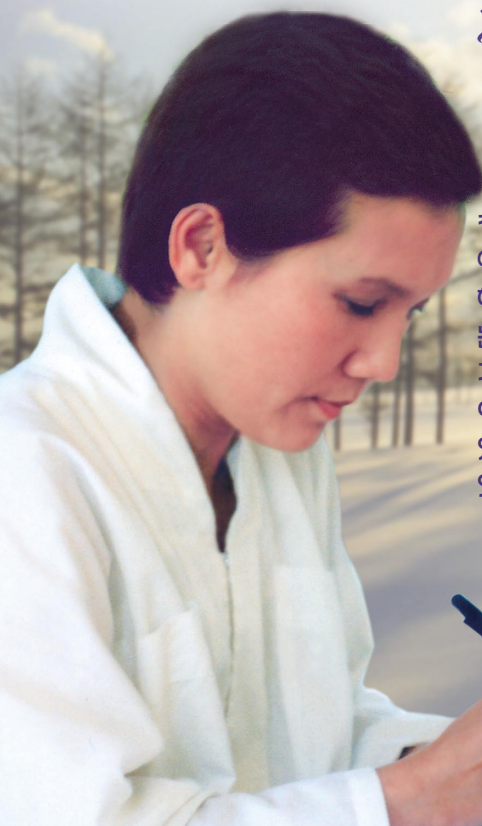


황혼 무렵 빗방울이 토란
앞을 적시는 모습. 저녁
노을이 짙 무렵이라서 보
랏빛을 띤다.



오묘한 세계가

채색 부채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다



청하이 무상사는 자신의 창조적 재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정규 예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지만, 여러 해 동안 명상하고 나자 예술적 영감이 충만 해졌습니다." 실제로 청하이 스승은 하룻밤 사이에 수십 개의 부채를 그리기도 했는데, 그 부채에는 각각 조화로운 색채와 생동감 넘치는 구도, 심오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

여기 수를 놓은 듯 섬세한 이 부채 작품들은 각각 고유의 품격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어떤 작품은 현대적인 감각을 갖추고 있고 어떤 작품은 고전적인 우아함이 엿보이며, 또 어떤 작품은 장난기가 가득하여 작가의 유머와 천진난만한 성품을 고스란히 반영하기도 한다.

청하이 무상사의 작품들을 감상하다 보면 천상의 감로수를 음미하듯 새로운 기운이 넘치고 마음이 흠족해진다. 신의 은총과 축복 속에 부채 작품 여덟 점이 다시 제작되어 스승님의 무상 예술이 가진 아름다움과 창조성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다.

여의주를 얻은 용

은하수

지나친 깨달음
(제4의 눈)

황궁의 문

용은 갈망하던 여의주를 얻었지만, 여의주가 너무 커서 미처 삼키지 못한다. 용보다 여의주가 크다는 것은 상서로운 징조로서 뿌듯한 만족스러움을 나타낸다.



이는 부채의 등급보다 높은 제4의 눈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표현한 것이다.

